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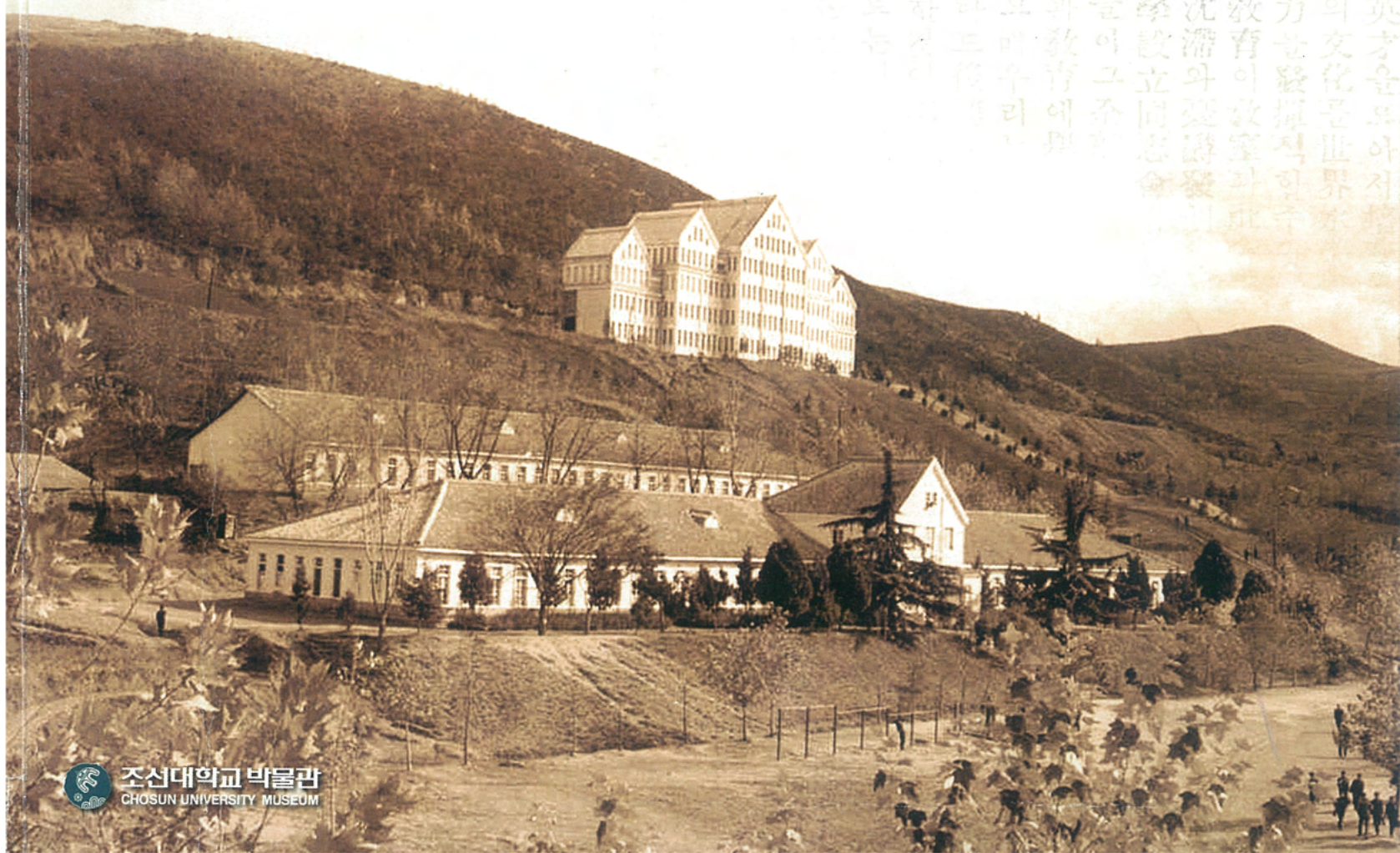
특별전 _ 조선대학교 65년

The Special Exhibition for Celebrating the 65th Anniversary of Chosun University

Making C.U. the Center of Thousands of National Leaders

민족 지도자들이 수천 수만이
배육되옵도록

본질과特殊能力을發揮せる
生活と過去の教育が教室から
合理的社會生活の沈滞と變遷發
展の學界指導者들이그주
를세웠고産業과教育에關
한은茶飯事이고그리우려
한것은國內에서다드레
體系를採用한것이
한은한자를쓰는



일러두기

1. 이 책은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 개최한 개교 65주년 기념 학교사 특별전(2011.5.17~6.3)의 전시도록이다.
2. 이 책의 내용은 『조선대학교 50년사』(1997, 조선대학교사 편집위원회)와 부록에 수록된 논고를 인용·참조하였다.
3. 원문은 요즘 글로 바꾸어 수록하였다.
4. 특별전 이름과 각 장의 제목은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취지문에서 발췌하였다.

도움주신 분들

고 김영원교수 유족
강형룡·고창현·권달주
김사천·김일두·김종열
김주영·문경환·박종철
신양현·이석진·이성연
이승우·이재권·전병일·한준홍
조선대학교 홍보팀
조선대학교 대외협력팀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선대학교 미술관
조선대학교 내성세포연구센터
조선대학설립동지회 기념사업회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광주광역시
광주제일고등학교

기획·총괄 : 이기길
자문 : 김경숙·박명도
진행 : 이강희
원고 : 이강희·박진철·노영기
사진 : 박명도
전시 디자인 : 아트마인
도록 디자인 : 이용구
제작 : 아트마인

「조선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23」

글, 사진의 저작권자 2011©조선대학교 박물관 / 조선대학교 박물관의 허락 없이 이용 또는 발췌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 2011년 5월 17일 발행처 : 조선대학교박물관

ISBN 978-89-966521-0-6 <비매품>



The Special Exhibition for Celebrating the 65th Anniversary of Chosun University

**Making C.U. the Center
of Thousands of National Leaders**

특별전 _조선대학교 65년

민족 지도자들이 수천 수만이
배육되옵도록



발간사

일제의 탄압과 차별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에 문을 연 조선대학교는 정부나 특정인의 출연에 기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각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7만 2천여 명의 설립동지회원들이 고귀한 마음으로 주신 깨끗한 재물로 배움의 터전이 마련되고 인재 양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대학교를 세운 선각자들은 “조선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는 충의한 영재를 길러 조국건설의 초석이 되며 인류문화의 선도자가 되게 함”을 목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재의 조기 발견, 양성과 세계문화 수준의 빠른 추월을 위해 부속중학교를 설치하였으며, 영재의 낙오를 방지하기 위해 빈곤한 학생의 학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 같은 목적과 원칙 및 제도를 바탕으로 노력하여 1953년에는 완전한 종합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조선대학교는 15개의 단과대학과 9개의 대학원으로 이뤄진 큰 규모의 상아탑으로 자랐습니다. 그동안 조선대학교를 거쳐 간 구성원 중에는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 계몽운동, 경제운동, 인권운동, 사회와 학원의 민주화 그리고 역사와 문학, 미술, 과학 등 여러 분야를 선도하거나 세계를 무대로 조선대학교의 지성을 빛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 그 모습들을 가까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전시를 개최하는데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호중 총장님을 비롯하여 교직원,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전에 귀한 소장품을 빌려주신 분들과 논고를 작성한 박진철, 노영기 두 박사님, 전시와 도록 제작에 힘쓰신 박명도, 이용구 선생님, 함께 전시를 준비한 학예실장 김경숙 교수와 실무를 담당한 이강희 학예연구사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2011년 5월

박물관장 이 기 길

축사

올해는 조선대학교가 개교한지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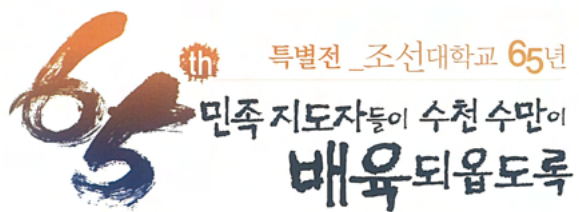
조선대학교는 1946년 72,000여 설립동지회원들이 뜻을 모아, 해방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건립한 우리나라 유일의 민립民立대학입니다. 이 같은 숭고한 설립 정신에 따라 조선대학교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산업과 결합한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선진 학문을 창조하는 교육·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교수, 직원, 학생과 동문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역시 콩 한 되, 쌀 한 말을 모아 학교를 설립했던 지역민들의 공동체 정신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65년 역사가 내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도 있었으며, 어둡고 불행했던 시절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과 설립정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조선대학교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는 우리 대학에 몸담으셨던 교직원 여러분들과 사회 곳곳에서 실천의 삶을 살고 계시는 동문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개교 100주년을 바라보며 통일 한국의 주역, 동북아 중심대학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질적인 도약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우리대학의 설립사와 지난 65년의 발전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게 되니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이 특별전이 조선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설립의 역사를 알리고, 구성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처럼 의미 있는 전시회를 위해 소중히 간직해 온 자료를 아낌없이 내주신 분들과 이기길 박물관장님을 비롯한 박물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1년 5월

조선대학교 총장 전 호 중



차례

발간사 4

축 사 5

민족 지도자들이 수천수만이 배육되옵도록

I. 호남지방에 완전한 종합대학을 세워

1. 설립 배경 10
2.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12
3. 종합대학으로 승격 30

II. 세계 열강의 어느 역사적 대학보다도

1. 캠퍼스의 완성 40
2. 대학과 대학원 48
3. 백악의 삶 50

III. 문화는 언제든지 영재가 창조 발현하여

1. 민족의 앞에 서서 56
2. 문화의 품을 넓히고 62
3. 세계를 무대로 68

〈논고〉

노영기 _ 민족 영재 육성의 열망, 조선대학의 설립 74

박진철 _ 조선대학교 65년 - 그 변화와 발전 85

하여實力을養成하고잇서서 우리와의對比는問題도

아니며只今이라도外力이干涉치안하면再侵略은茶飯事

이고보매우리는于先우리의前進을妨害하는退嬰的我執과

固陋한形式을果敢히一擲하고우리의全施設을極限活用

하며우리가야는知識範圍內에서라도後進을晝夜不問하고

教育하여우리祖國을光復하지안하면안이될 것이입니다

世界所謂文化國이고近代的大學中學小學의教育體系를

採用한것이不過幾年에지나지못한것을回顧

할때에우리들은黃士로라도답을싸고창오지로라도

돈을벌나서허청에서라도한字를아는사람은한를모르는

사람의게가라치여우리는우리民族文化을建設

하여야할것입니다朝鮮大學設立同志會는이러한覺醒과

決心에서于先朝鮮大學園을設立하여晝夜로朝鮮의俊才를

教育中에現下混亂과窮乏한處地에서萬難을물니치고

壯大한抱負와堅固한信念을가지고誕生한이大學園이

世界列強의어느歷史的大學보다도卓越한教育機關이

되여서우리들을이塗炭과慘境에서救援할수잇는民族的指

導者들이數千數萬이培育되옵도록祝福하시는마음으로

朝鮮大學設立同志會會員이되시여一心同力

하시여주시옵소서

湖南地方에 완전한 綜合大學을
朝鮮各地의 英才을 모아서 培育하
여 인재 든지 英才가 創造發見하여
享有하며 悅樂하는 것이 文化進展의 現象이고 보매 朝鮮의

文化를 世界水準에 急速히 迫り 넘게 하는 데는

個性教育體系를 完立하며 過去의 同型彫塑의 이고

綜合的인 것은 教育에 反하여 個性의 本質과 特殊能力을

發揮시킬 수 있는 個性教育을 하고저 하는 教育理想과

教育의 視野에 있어서 學資의 裕貧으로서 英才의 輝을

左右케 하자는 生覺과 過去의 教育이 教室과 社會現場

과의 遊離가 넘어나 甚하여 實際的인 안이였기 때문에

教育理想과 社會現實과의 背理와 遊離가 나은 生産의 非合理

社會生活의 沈鬱發明의 沮害 明朗과 希望의 缺乏等을

克服하는 生覺을 이 습하여 上記한 理想을 具現할 수 있는

朝鮮大學을 設立하고 具體的으로 朝鮮大學設立同志會가

設立되기를 기대하며 尤도 鐵山板에 刻한 나무가 刻後

에 刻한 學界指導者들이 그 全部가 世界水準을 凌駕

하게 된다는 信心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實地로 建設하며 只今이 땅을 물러간 日本人은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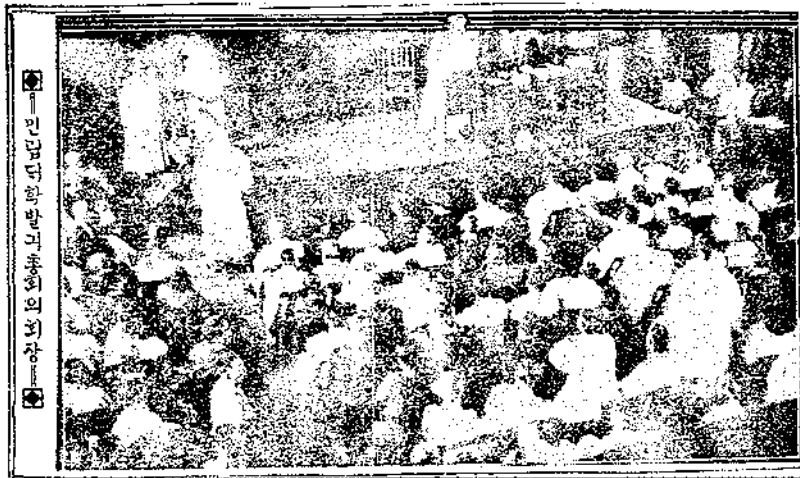
호남지방에 완전한 종합대학을 세워

1. 설립 배경
2.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3. 종합대학으로 승격

1. 설립 배경

1.1. 조선민립대학 설립 운동

3·1운동 실패 이후, 1922년 11월 이상재·송진우·한용운 등 민족 지도자 47인이 회동하여 민족의 내일을 위해 대학을 세워 인재를 키우자는 ‘조선민립대학 설립을 위한 기성회’를 발기하였다. 이어 1923년 3월 29일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발기총회’를 개최하여 단계별 계획을 확정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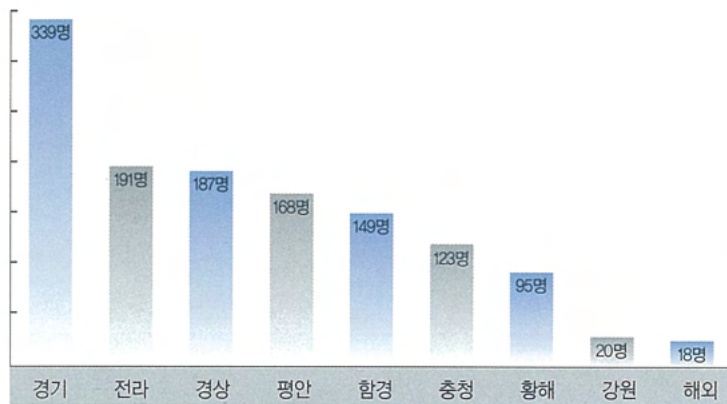
민립대학 발기총회장 (조선일보, 1923년 3월 30일)



발기총회 참석자 기념사진

조선민립대학 설립취지문에서

우리의 운명은 여하히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들이 모두가 필요하도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선무가 되고 가장 선결의 필요가 있으며 가장 힘있고, 가장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교육에도 계단과 종류가 있어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이를 보통교육으로써 능히 수여할 수 있으나, 심원한 지식과 깊은 학리는 이를 고등교육에 기하지 아니하면 불가할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능유위의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다.....



경기지역 다음으로 호남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발기인들이 참여했으며, 전체 모금액 100여만 원 가운데 15만 원이 전남과 전북에서 모금되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조선민립대학 기성준비회 경과』)

▶ 1923년 3월 당시 발기인 모집 현황

1.2. 호남민립대학 설립 운동

조선민립대학 건립 운동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호남 사람들은 '서울에서 이룩하지 못한 일, 광주에서 이룩해보자'라는 표어 아래 대학 건립 운동을 계속 이어 갔다. 그 같은 열망은 1920년 8월에 설립된 민족자본 호남은행¹⁾의 설립 주체들이 주도하여 '호남민립대학 설립 운동'으로 구체화되었으나, 이 역시 일제의 강압통치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1) 호남은행 : 호남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1920년 10월 2일에 호남의 부호였던 현준호, 김상섭, 김병로 등이 당시 돈 150만 원으로 설립한 순수 민족자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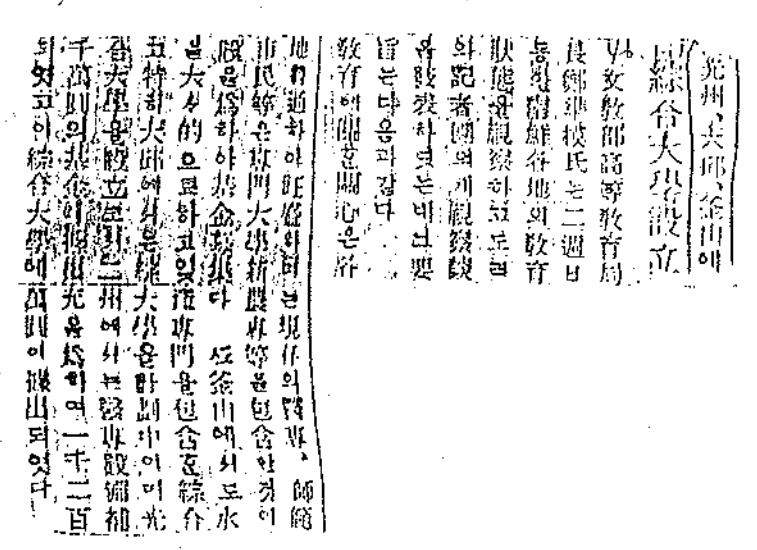
2.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2.1. 광복 후 대학 설립 양상

광복 후 전국에 걸쳐 대학이 세워지고 있었는데 광주에서는 판·검사,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법률전문대학교 설립 주장과 서민호²⁾와 박철웅³⁾을 위주로 한 유지급 인사들의 종합대학 설립 주장이 각각 있었다.

광복 후 대학 설립 주체

설립 주체	대학 설립 예	현재
이군정	서울대학교	국립 서울대학교
일제 하 사람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연희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국민대학관	국민대학교
단체	유림	성균관대학교
개인	대구대학, 청구대학	영남대학교
지역민의 광범위한 참여	조선대학원	조선대학교



광주·대구·부산에 종합대학 설립 (동광신문, 1946년 6월 19일)

광주·대구·부산에 종합대학 설립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정준모씨는 이주일 동안 조선 각지의 교육 상태를 시찰하고 돌아와 기자단에게 시찰담을 발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교육에 관한 관심은 각지를 통하여 왕성하며 시민 등은 전문대학 신설을 위하여 기금 모집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대구에서는 종합대학을 설립코자 이천만 원의 기금이 각출되었고 이 종합대학에는 현존 의전, 사범, 농전 등을 포함한 것이다. 또 부산에서도 수산전문을 포함한 종합대학을 계획 중이며, 광주에서는 의전설비보충을 위하여 일천 이백만 원이 각출되었다.

2) 서민호 : 전남 고종 충신으로 일본 와세다대학 정경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롬비아대 대학원 정치사회학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었으며, 1946년 초대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조선대학교 설립에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제 2, 5, 6, 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3) 박철웅 : 전남 고종 충신으로 일본 메이지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였다. 1946년에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장직을 맡아 조선대학교 설립에 큰 역할을 하고 초대 학장을 역임했다. 이후 1953년부터 1987년에 이르기까지 조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에 재직하면서 개인 우성화와 대학 사유화를 기도하다 1988년 학원 자주화 운동으로 물러났다. 제 2, 4, 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2.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연혁

대학 설립에 뜻을 둔 인사들은 '조선민립대학 설립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되 순수한 민간인들의 뜻이 모여져서 설립되는 대학만큼 설립 정신과 자금 출처의 근본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설립 동지회를 결성하였다. 대학명칭은 지역성을 초월하여 넓은 의미와 큰 뜻을 상징하는 조선의 국호를 취하여 '조선대학'으로 정하였다⁴⁾.



▶ 초기의 교기 (출처 : 1960년 졸업앨범)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연혁

1946	5. 16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설립준비위원회 결성
	6. 29	조선대학 및 부속생산공장 설립동지회 준비위원 11명 선출
	8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발족 (광주서중학교 강당)
	9. 9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요청으로 광주야간대학원 설립 인가
	9. 29	광주야간대학원 개교 (4학부 12학과 1,194명 정원)
	11. 23	광주야간대학원을 조선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12. 1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취지문을 발표하고 회원 모집 및 모금 활동
1947	12. 31	설립동지회원 7만 2천여 명 확보
1949	6. 25	설립동지회원 10만여 명 확보

4) 대학 명칭은 1946년 5월 대학설립을 위한 첫 모임에서 '전남대학', '호남대학', '광주대학'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광주라는 지역성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와 큰 뜻을 담자는 데 의견을 모아 아예 조선의 국호를 따라 '조선대학'으로 결정하였다.

2.3.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칙

朝鮮大學設立同志會則	第一條 本會는朝鮮大學設立同志會稱號	第二條 本會는朝鮮大學及附屬中學校設立하여深奧學理を究明하며朝鮮民族과人類爲하여犧牲하는忠義英才를培育하여祖國建設의礎石의되며人類文化先導者가되게함을目的함	第三條 本會는會의目的을達成키爲하여左의原則과制度에서教育을實施하며運營함 1、英才의初期 發見과其養成이며世界文化水準에急追越을爲하며中小教育부의個性敎育體系의實現을期하며本大學는附屬中學校를設置함 2、發見又는創造의學理의實踐을通하여우리民族과人類의德義向上과富強을爲하며本大學는附屬生産及文化施設을營爲함 3、貧困으로困窮英才의落伍를防止하며學資의裕貨으로英才의輝沒을左右키爲하며本大學及附屬中學校에入學한貧困한者의全學費는本會에서擔當함	第四條 朝鮮大學學則、附屬中學校規則、附屬生産公社定款은別途로定함	第五條 本會의總本部는暫定的으로全羅南道光州에設치고各道에는各道本部各郡支部各邑面에는各邑面分會各洞에는班會를設함을得함	第六條 本會에는會長一名 副會長二名 顧問若干名 參議若干名 名譽理事若干名 理事若干名 監查若干名을置함	第七條 會長은會를代表하고會務를統理함	第八條 副會長은會長을補助하고會長不在時에는會長의指名에依하여此를代理함	第九條 顧問은會長의諮問에應함	第十條 參議及名譽理事는理事會의諮問에應함	第十一條 理事는理事會를構成하고過半數의贊成에依하여運營方針을決議함 可否同數의時는會長此를決定함本會의會長副會長은理事會의議長副議長에任を行함	第十二條 監事는事業運營의進行을監査함	第十三條 會長副會長의任期는五年으로하며理事會의推戴로此를選任함	第十四條 顧問의任期는二年으로하며會長의此를推戴로此를選任함	第十五條 參議의任期는二年으로하며理事會에서此를推戴로此를選任함	第十六條 名譽理事의任期는二年으로하며理事會에서此를推戴로此를選任함	第十七條 理事는全生涯를本會完成發展爲하여犧牲할데는首肯發起人總會에서此를選任함理事缺員時에는理事會此를選任함	第十八條 監事의任期는二年으로하며會長의參議及顧問에諮問하여推戴로此를選任함	第十九條 本會의會員은本會의目的을贊成하며本會의理想을達成키爲하여誠實히盡力코치하는者로外每年百圓의會費를納付하는者會員으로 로하되特別功勳과多額의寄附行爲가有한者를名譽會員으로推戴함	第二十條 本會의定期總會는四月에會長此를召集할時日及場所는主要顧問及本事務所에서此를揭示함	第二一條 臨時總會는會長或은會長三分之一以上이提議할時는會長此를召集할을得함	第二二條 本會는計年度는四月一日에始作하며翌年三月三十一日 終了함	第二三條 本會의決算及決算及事業의重要狀況은此를定期總會에報告함	第二四條 本會의事業部署를左와如하로置함 1、總務部 2、教育部 3、企劃部 4、生産工場部 5、財政部	第二五條 第二四條各部以下의部署及職任는理事會의決議에依하여此를定함	第二六條 會則中第一條 第二條 第三條外의規則의改定은會員三分之二以上과理事會의決議가有한時外에는此를改定함을不得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취지문 중의 회칙 (1946년 12월 1일)

2.3.1. 목적

제2조

본회는 조선대학과 부속중학교, 생산공사(公社)를 설립하고 심오한 학리를 규명하여 조선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는 충의한 영재를 길러 조국건설의 초석이 되며 인류문화 선도자가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인류문화 선도자를 꿈꾸며... (1948년 1월 23일)

民族的指導者를 數千數萬이 培育되옵도록 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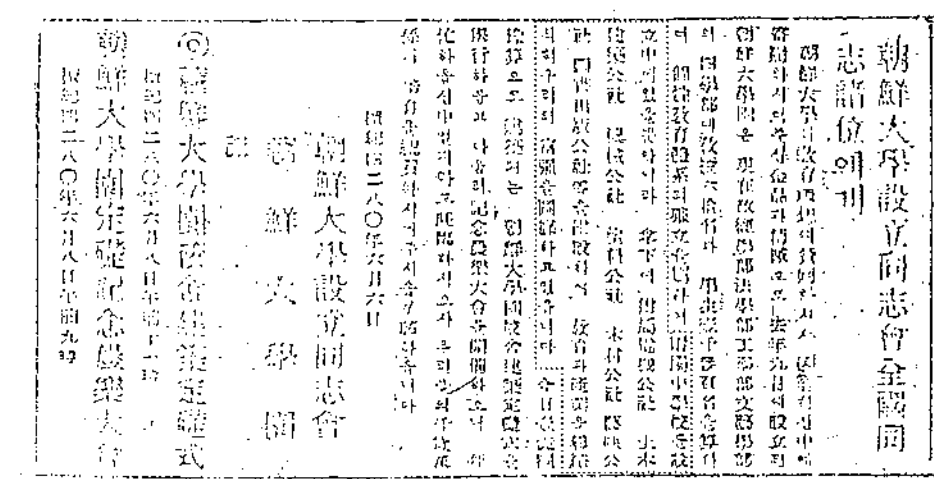
2.3.2. 원칙과 제도

제3조 1항

영재의 초기 발견과 그 양성이며 세계문화수준에 급 추월을 위하여 중소교육부터 개성교육체계의 실현을 기하기 위해 부속 중학교를 설치함

제3조 2항

발견, 창조된 학리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민족과 인류의 덕의향상과 부강을 위해 부속생산시설과 문화시설을 운영함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전국 동지 제위에게
(동광신문, 1947년 6월 7일)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전국 동지 제위에게

거년 9월에 설립된 조선대학은 현재 정경학부, 법학부, 공학부, 문예학부의 4학부에 교수 60명과 학생 1천 3백 명이 개성교육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부속중학교를 설립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산하에 전기공사, 토목건축공사, 기계공사, 도로공사, 목재공사, 예염공사, 도서출판공사 등을 부설하여 교육과 산업을 연결시켜 우리의 부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속중학교의 연혁

1947	7. 25	조선대학원 부속중학원 설립
	10. 2	조선대학원 부속중학원 이부 설립
1948	7. 31	조선대학 부속중학교로 인가(36학급, 1,300명)
1950	5. 19	4년제 48학급으로 개편(2,400명)
1951	8. 31	부속중학교(24학급, 1,200명)와 부속고등학교(24학급, 1,200명)로 분리 개편

제3조 3항

빈곤으로 인한 영재의 낙오를 방지하며 학자의 유빈으로써 영재의 회몰을 좌우치 않기 위하여 본대학과 부속중학교에 입학한 빈곤한 학생의 전 학비는 설립동지회에서 부담함

朝鮮大學學生募集

今年度新入生募集을 左記要項에 依하여 募集함

一、募集人員

政治學科(法學專攻分野包含) 經濟學科 哲學科 文學科(美術專攻分野包含) 音樂科 體育科 數學科 物理學科(機械學 土建學 建築學 電氣學 鐵山學 專攻分野包含) 化學科 農學科 畜產學科 林學科 各學科六十名

二、願書提出期間 自四月二十八日(六月二十日)까지 本大學教育局에 提出할 事

三、試驗期日 自四月二十八日(六月二十日)까지 每日 上午九時

四、其他詳細는 本大學 教育局에 問議及 光州新報에 照會함

獎學特典

一、抗日烈士 및 愛國志士 遺子弟는 學費全額을 給與함

二、分科別에 秀出한 者는 學費全額을 給與함

三、成績優秀한 者는 校費로 大學院에 進學케 하며 外國에 留學케 함

▶ 조선대학 학생모집 (동광신문 1949년 6월 3일)

장학 제도

민족 지도자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과 빈곤함이 영재를 교육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개교 당시부터 장학제도가 시행되었다. 항일투사 및 애국지사 유자제, 특기생에 대한 학비 면제, 성적 우수자에 대한 외국 유학 제도 등은 당시 사회 공헌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1955년부터는 생산교육을 통해 민족과 인류의 부강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과대학 생산교육장학생 제도로 학비 전액과 식비, 기숙비, 의복비, 의료비 등 재학 중 모든 비용을 지급하는 을류(乙類)장학생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58년부터는 모든 계열, 산하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학비 전액을 면제하는 갑류(甲類)장학제도도 신설했다.



▶ 김일두 명예교수의 을류장학생 시절 (1958년 당시 기숙사 앞에서)

조선대학에서는 목하 애국지사의 자제 및 천재적 소질을 가진 극빈학도 15명에게 급비로써 이를 양성하고 있는데 오는 가을에는 이 제도를 확장하여 중등 200명, 대학 100명, 합계 300명의 숫자와 애국지사의 자제를 교육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데 이는 사회에 큰 공헌이 될 것이다.

(연합신문 1949년 6월 12일)

民族의指導者를 數千數萬이 培育되 음도록 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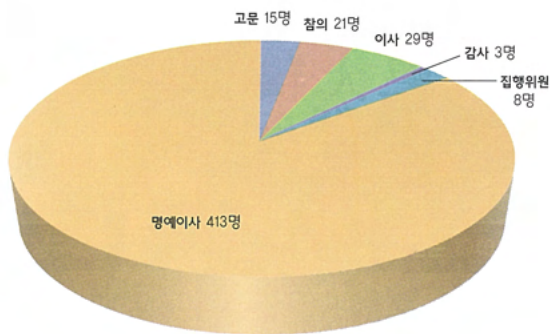
제5조

제6조

본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고문 약간 명, 참의 약간 명, 명예이사 약간 명, 이사 약간 명, 감사 약간 명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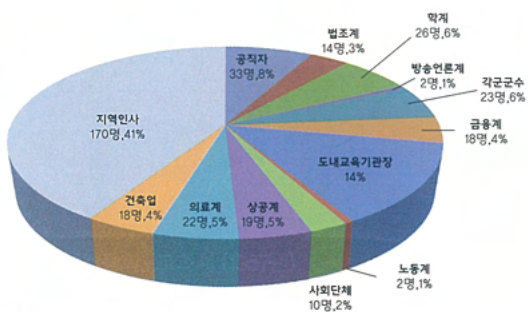
▶ 조직 구성 (설립동지회 취지문 뒷면)

구분	직무	임기
회장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함	5년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에는 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이를 대리함	2년
고문	회장의 자문에 응함	2년
참의 및 명예이사	이사회에 자문에 응함	2년
이사	이사회를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운영 방침을 결의	전생애를 본회 완성 발전을 위하여 화생하려는 자를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
감사	사업운영의 진행을 감사함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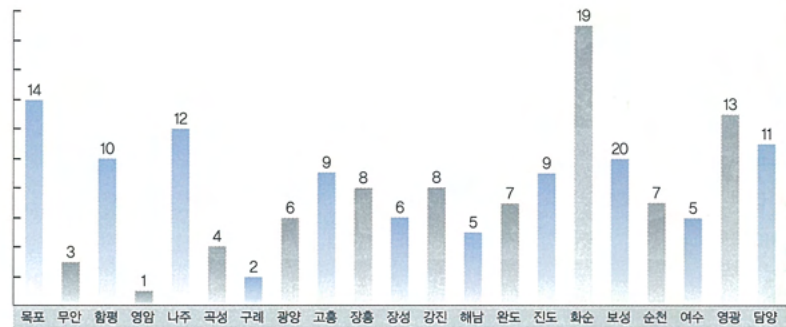


▶설립동지회의 임원 구성

설립동지회에 고문과 참의, 명예이사로 이름을 올린 인사들을 살펴보면 미군정 문교부장(유억겸, 오천석), 사회 저명 인사(김성수-고려대 설립자, 김병로-초대 대법원장, 이승기-공학박사, 당시 서울공대교수 등), 지역사회 관공리(판검사, 행정관료, 각급 학교장)에서부터 지역의 경제 단체 대표, 지역민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명예이사의 구성과 지역별 분포



온통 물집이 생기고 웅이가 박힌 인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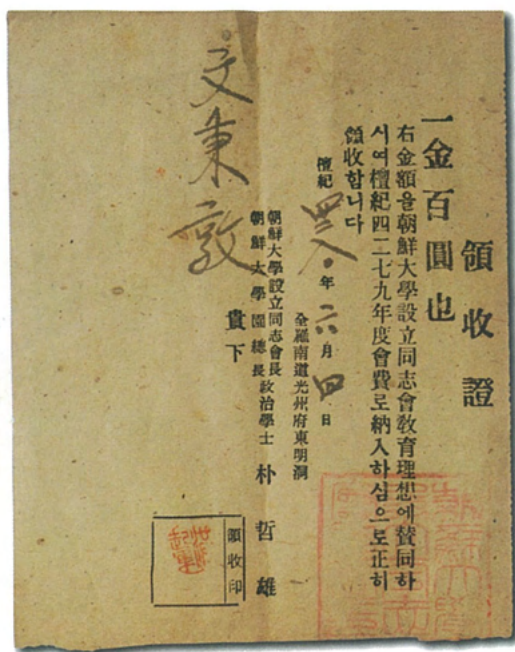
사실 광주야간대학원 설립의 서류 작성은 우리 집 (당시 금남로 3가 23번지)에서 도맡아 했어. 그도 그럴 것이 설립동지회에 타자가 한 대나 있나, 사무용품이 있나, 우리 집이 적격 장소였지. 1946년 10월이었던가 확실치는 않는데, 야간대학원생들이 광주여고 강당을 빌려서 학우회를 결성하고 있었는데, 윤재춘 (尹在春, 작고) 씨가 회장이 되고 나는 몇몇 사람과 함께 이사로 뽑혔지. 그때 회비를 각출하여 20여 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박철웅씨가 설립동지회 취지문을 인쇄해야 되겠는데, 당장에 쓸 현금이 없다고 해서 우리 학우회 회비를 가지고 목포 입자제지에서 신문용지 두 마끼를 172,000원에 구입하여 이 종이를 풀어서 일일이 손으로 절단 평판으로 인쇄를 하고 보니 손가락에 온통 물집이 생기고 웅이가 박히더군.

- 권달주 동문 (전문부 물리학과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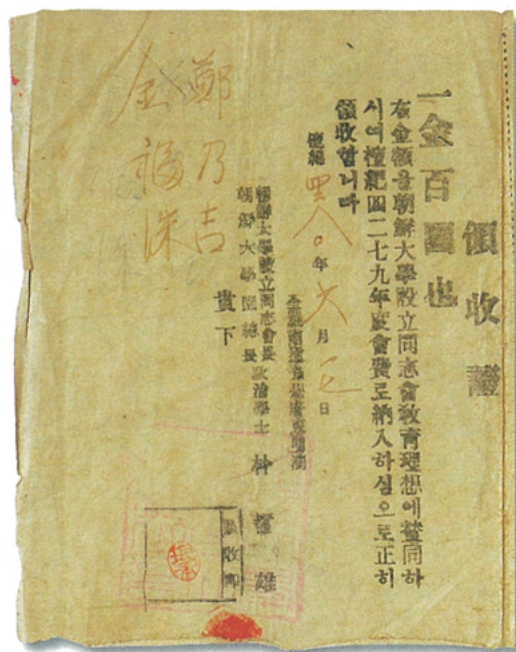
2.3.4. 회원

제19조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찬성하며 본회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진력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매년 백원⁵⁾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되 특별공로와 다액의 기부행위가 있는 사람은 명예회원으로 추대함



▶ 보성의 문병돈 회원에게 발급한 영수증 (1947년 6월 4일)



▶ 완도의 김복수 회원에게 발급한 영수증 (1947년 6월 17일)

설립동지 회원의 면면과 뜨거운 교육열

위로는 수만 석의 대지주에서부터 머슴살이 농사꾼에 이르기까지, 철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역사 주변에서 일용직으로 철도 화물을 나르던 노동자까지, 바닷가 어느 가난한 어부로부터 광주의 시내 상가의 상인, 그리고 지리산 첩첩산중에 살던 화전민에 이르기까지 대학설립동지회의 회원으로 참여했다.

그들이 100원 권 현금 대신에 내놓은 쌀 한 말, 참깨 한 되, 콩 한 말, 장작 한 짐, 그리고 저 멀리 전라남도 바다 끝 진도, 완도 섬으로 연해진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 한 톳, 미역 한 묶음까지도 아낌없이 내놓고 가져가라던 그 뜨거운 교육열에 조선대학의 설립 운동은 희망찬 미래를 다짐해 가는 상아탑의 표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조선대학교 50년사』, 55쪽

5) 백 원은 현재 쌀 한 말 가격에 해당한다.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기념탑기

8.15 조국 광복의 감격이 아직도 충만해 있던 서기 1946년 8월에 대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민족과 국가를 중흥케 하기 위하여 이 지방 각계의 유지들은 조선대학 설립동지회를 창립하였다. 이어서 당시 전라남도지사 서민호 선생을 고문으로 모시고 그의 적극적인 지원과 초대회장 박철웅 선생을 중심으로 재단설립을 위한 기금확보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의 전문부 학생들이 주체가 된 이 모금운동은 전남을 중심으로 호남의 방방곡곡까지 확산되어 7만 2천여 회원을 규합하게 되었고 그 회원들이 출연한 회비로 서기 1948년 5월에 재단법인조선대학의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동시에 조선대학원은 조선대학으로 개편되었다. 그 후로도 회원은 계속 증가하여 10여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대학설립 과정은 우리나라 대학설립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호남인들의 일대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이 기념탑은 조선대학교의 상징이며 정신적 지주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전 구성원은 이와 같은 숭고한 설립정신을 명심하여 투철한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학원을 사유화 또는 기업화하려는 어떠한 책동도 용납되어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자부과 긍지를 갖고 학업에 정진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전심전력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기를 바란다.

— 1994. 11.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기념탑 건립위원회



▶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기념탑



民族的指導者들이
數千數萬이
培育되
음도
祝

2.4.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취지문

湖南地方에 완전한綜合大學을세워湖南의秀才와朝鮮各地의英才을모아서培育하자는生覺과文化는언제든지英才가創造發見하여一般國民은그文化를享有하며悅樂하는것이文化進展의現象이고보매朝鮮의文化를世界水準에急速히따라넘게하는데는個性教育體系를完立하며過去の同型彫塑의이고綜合的인것은教育에反하여個性의本質과特殊能力을發揮시킬수잇는個性教育을하고저하는教育理想과教育의分野에잇서서學資의裕貧으로서英才의輝沒을左右치안케하자는生覺과過去の教育이教室과社會現場과의遊離가넘어나甚하여實際的인안히엿기때문에教育理想과社會現實과의背理와遊離가나은生産의非合理社會生活의沈滯와憂鬱發明의沮害明朗과希望의缺乏等を克服하자는生覺들이습하여上記한理想을具現할수잇는朝鮮大學을設立하고저具體的으로朝鮮大學設立同志會가設立되었습니다그러나이大學園은우리의새멘트工場유리工場製鐵所가돌고山板에가늘한나무가큰後에또는우리의學界指導者들이그全部가世界水準을하게된다음에비로소建設하자고하면몇해걸릴년지모르며只今이땅을물러간日本人은발서秩序를세우고産業과教育에學國的으로力量을集中하여實力을養成하고잇서서우리와의對比는問題도아니며只今이라도外力이干涉치안흐면再侵略은茶飯事이고보매우리는于先우리의前進을妨害하는退的我執과固陋한形式을果敢히一擲하고우리의全施設을極限活用하며우리가아는知識範圍內에서라도後進을晝夜不問하고教育하여우리祖國을光復하지안흐면안이될것입니다世界所謂文化國이그近代의大學中學小學의教育體系를採用한것이不過幾年에지나지 못한것을回顧할때에우리들은黃土로라도담을싸고창오지로라도문을발나서허청에서라도한字를아는사람은한字를모르는사람의게가라치여우리는우리民族文化을建設하여야할것입니다

朝鮮大學設立同志會는이러한覺醒과決心에서于先朝鮮大學園을設立하여晝夜로朝鮮의俊才를教育中에現下混亂과窮乏한處地에서萬難을물니치고壯大한抱負와堅固한信念을가지고誕生한이大學園이世界列強의어느歷史의大學보다도卓越한教育機關이되여서우리들이塗炭과慘境에서救援할수잇는民族的指導者들이數千數萬이培育되옵도록祝福하시는마음으로朝鮮大學設立同志會會員이되시여一心同力하시여주시옵소서

加馬
12/1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취지문



- ▶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취지
1946년 12월에 설립동지회 집행 부위원장이었던 한규종이
1923년의 '조선민립대학 설립 발기문'을 참고하여 초안을 만들고,
수 차례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호남지방에 완전한 종합대학을 세워 호남의 수재와 조선각지의 영재를 모아서 배육(培育)하고 자 합니다. 문화는 언제든지 영재가 창조 발현하고 일반국민은 이를 향유하고 열락(悅樂)하는 것이 문화 진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랜 일제의 압박에서 갓 벗어난 우리가) 조선의 문화를 급속히 세계수준에 오르고 넘어서게 하려면 개성교육 체계를 굳건히 세우고, 과거의 틀 찍어내듯 하는 교육, 피상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성의 본질과 특수능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교육에 힘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하는데 있어서 학비를 낼 능력에 따라 영재의 미래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거의 교육이 교실과 사회현장과의 유리가 너무나 심하여 실제와 동떨어졌고, 이로 인해 교육이상과 사회현실과의 괴리가 낳은 생산의 비합리, 사회생활의 침체와 우울, 발명의 저해, 명량과 희망의 결핍 등을 극복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열망에서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조선대학설립동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학원(大學園)은 우리의 시멘트공장, 유리공장, 제철소가 돌고, 산판의 가느다란 나무가 큰 후에, 또는 우리의 학계 지도자들 그 전부가 세계수준을 능가하게 된 다음에 비로소 건설하자고 하면 몇 해 걸릴는지 모르며, 지금 이 땅을 물려간 일본인은 벌써 질서를 세우고, 산업과 교육에 거국적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실력을 양성하고 있어서 우리와 비교가 안 되며, 지금이라도 제3국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재침략은 다반사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퇴영적 아집과 고루한 형식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우리의 모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며, 우리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라도 후진을 주야불문하고 교육하여 우리 조국을 광복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소위 세계의 문화국이라 하여도 그 근대적 대학 중학 소학의 교육체계를 채용한 것이 불과 몇 년에 지나지 못한 것을 돌아 볼 때에 우리들은 황토로라도 담을 쌓고 창호지로라도 문을 발라서 허청(虛淸)에서라도, 한 자를 아는 사람은 한 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우리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선대학 설립동지회는 이러한 각성과 결심에서 우선 조선대학원(朝鮮大學園)을 설립하여 밤낮으로 조선의 준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선 혼란과 궁핍한 처지에서 장대한 포부와 견고한 신념을 가지고 만남을 물리치고 탄생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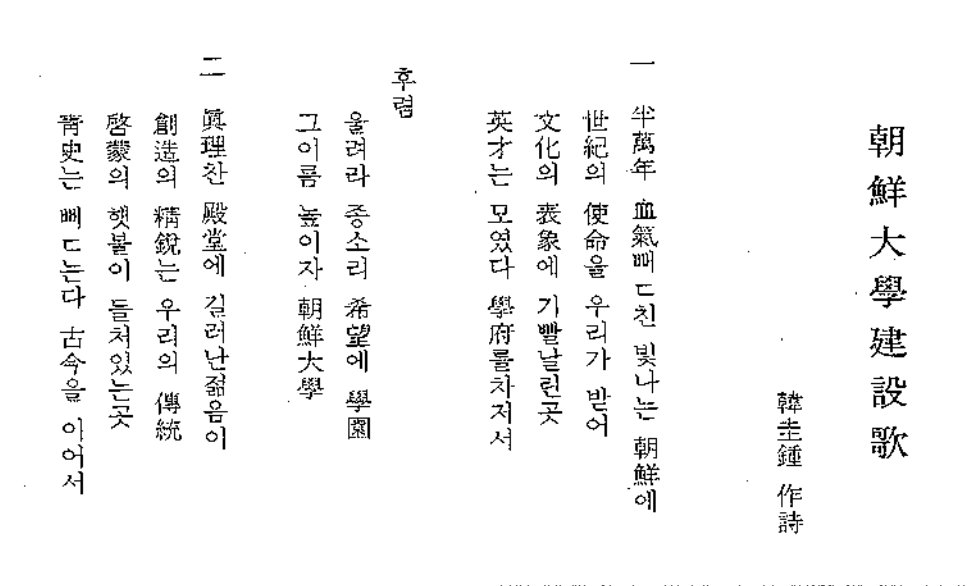
이 대학원이 세계열강의 어느 역사적 대학보다도 탁월한 교육기관이 되어서 우리들을 이 도탄과 참경에서 구원할 수 있는 민족적 지도자들이 수천수만이 배육(培育)되도록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원이 되시어 한 마음으로 힘써 주시옵소서.

民族的指導者들은
數千數萬이培育되옵도록祝

2.5. 모금활동

2.5.1. 모금활동에 앞장서다

학생들이 전남 도청에서 제공한 트럭을 나눠 타고, 호남 각지로 모금활동을 나가면서 불렀다는 '조선대학 건설가' 한규종⁶⁾이 가사를 지었고 단가형식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은 곡이 남아 있지 않다.



참으로 눈물겹고 감동스러운 장면

그 때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원모집의 중심 활동의 주체는 학생회 간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간부들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회원권 모금활동에 참여하였다. 한 조가 7~8명으로 편성되어서 한 지역에 투입이 되면, 보통 그곳에서 5~6일씩 머물면서 100원권 회원권을 들고 마을의 가가호호를 방문하다시피 하였던 것이다.

그 곳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때가 봄철이라고 기억되는데, 마을의 잘사는 집이나 가난한 집을 막론하고 '대학설립'이라는 말에 누구나가 호감을 가지고 현금이 없으면 쌀이나 김을 내놓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설립 기금에 보태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눈물겹고 감동스러운 장면이었다.

— 김영태 동문 (전문부 문학과 1회)

6) 한규종 : 설립동지회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 11인 중 한 명으로, 설립동지회 실행부위원장, 광주야간대학원 정치학 교수, 조선대학 학생처장 등을 역임했다. 일본에 유학해 정치학을 공부했으나 귀향 시정부때 문학에 관심이 많아 문예활동 중인으로 활동하였다. 이만 바깥으로 '조선대학 건설가'를 직접 작사하였고, 편석준 김기림과의 교분이 두터워 그를 교가 작사가로 추천하였다.

2.5.2. 동문들의 설립동지회 활동과 모금 운동 회고담

加入시킨 記號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설레던 感激時
대였다. 當時의 朴校長을 慰示
하는 熱意가 넘쳤던 學生들은 感動시키
는 力量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 感動을 받
은 우리 學生들은 歷史를 創造하는
부끄러운 自負心이 있었다.
"半萬年 血氣 斑斑..." 校歌를 소리
높이 合唱하면서 G. M. C 트럭 위에 어깨동무
를 하고 먼지 속에 흔들리면서 方々를 누르
던 지난 젊은 날의 追憶은 이제 생각해도 가슴
이 뛰었다.
또 우리 민족은 그 때 참으로 짙고 뜨거운 民族
的 愛와 人情에 넘쳐 있었다. 어디를 가나
우리들 學生들은 친, 자식처럼 대해 주었고
장학금에 自給은勿論인 民族的 祈禱를 전
했다.
그리고 朝鮮大學校를 이룬 것이
道義의 熱誠이라 한 말과 祈禱 속에서 태
어난 大學精神을 繼承하여 가는 것이다.
1993. 7. 17
한준홍

조선대학이야말로 민립정신의 대학임을 자부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설레던 감격시대였다. 당시의 박철웅 학장의 훈시에는 열의가 넘쳤고, 학생들을 감동시키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 감동을 받은 우리 학생들은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뿌듯한 자존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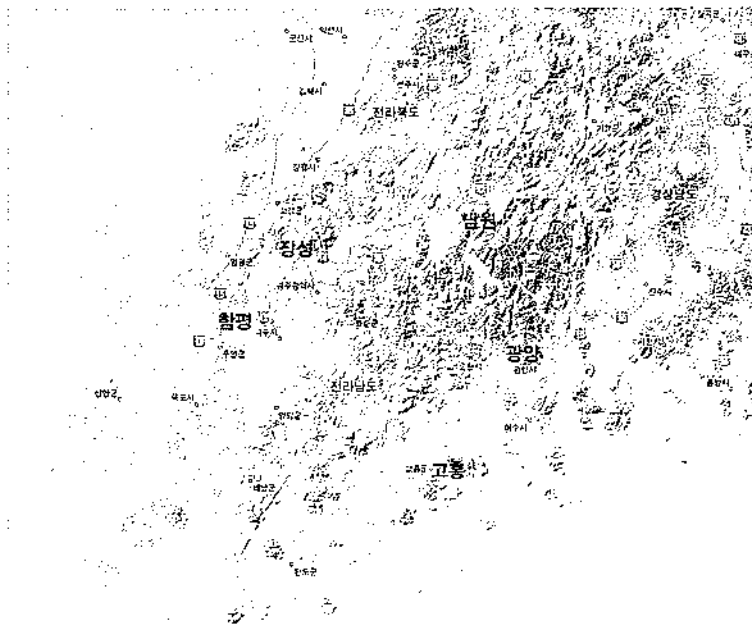
"반만년 혈기뻔친..." 건설가를 소리 높여 합창하면서 G.M.C 트럭 위에 어깨동무를 하고 먼지 속에 흔들리면서 방방곡곡을 누볐던 지난 젊은 날의 추억은 이제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다.

또 우리 민족은 그 때 참으로 짙고 뜨거운 민족애와 인정이 넘쳐 있었다. 어디를 가나 우리들 학생들을 친 자식처럼 대해 주었고 자녀교육에 자신은 물론 온 민족적 소망을 걸었다.

실로 조선대학교는 이와 같이 도민의 열성 어린 사랑과 소망 속에서 태어난 대학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준홍 (전문부 문학과 1회)

民族的指導者들이
數千數萬이
培育되옵도록
祝



한춘홍, 이근태, 김종규의 모금 활동지역

〈남원〉 이튿날 남원으로 갔는데, 맨 처음 찾아가는 곳이 남원군수 댁이었다. 이어서 남원 경찰서에 들어서 찾아온 취지를 설명하고, 그들의 안내로 약간 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날 밤에는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경위 한 사람이 광한루 근처에 있는 요정으로 안내해 주어 주연까지 받게 되었고, 또 근처의 여관에서 숙식까지 제공받게 되었다. 그 경찰관은 기생들과 어울려서 북을 치고 노래를 하면서 우리들을 기쁘게 해 주면서 회원권까지 사주었는데, 특히 그 자리에 동석을 한 기생들이 회원권을 사준 데 대한 고마움은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다. -한춘홍 (전문부 문학과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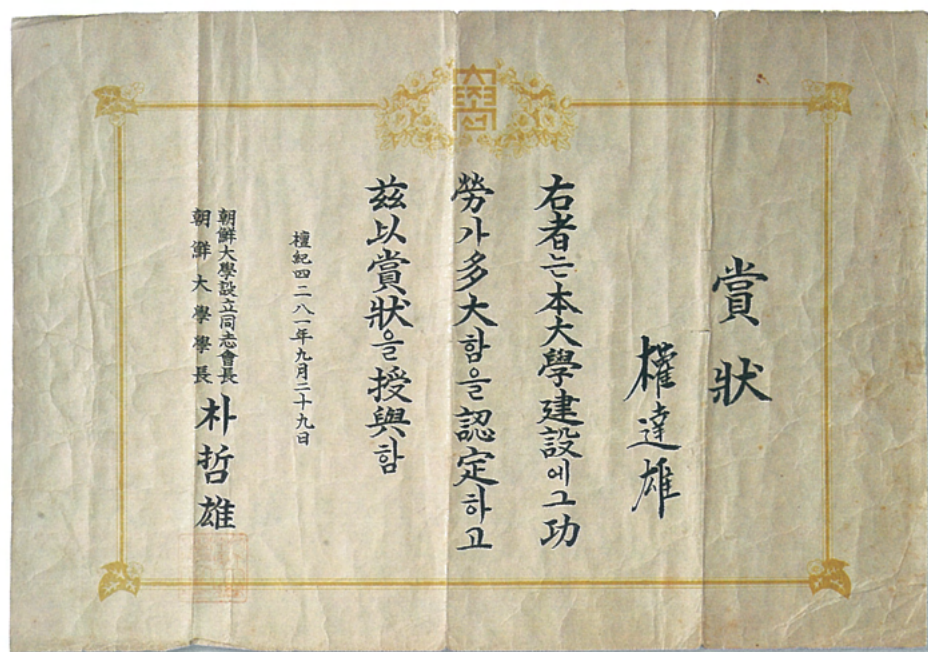
〈함평〉 어느 면의 어떤 마을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술안개’라는 옛 지명의 마을인데 언덕을 넘으니까 바닷가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 마을의 한 곳에서 일본군 군복을 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대나무와 소나무를 깎아서 집을 짓고 있었다. 그는 나의 취지 설명과 더불어 마을에 오게 된 내역을 듣자 즉석에서 말하기를 “나는 비록 못 배웠지만 나의 자식 손자들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하면서 그 자리에서 몇 장의 회원권을 사주고 열심히 해보라는 격려까지 해 주었다. -한춘홍 (전문부 문학과 1회)

〈고흥〉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에서는 면민 공동 명의로 특별 찬조금 74,000원을 포함하여 178,600원의 설립동지회 회원 가입금이 들어왔다.

〈장성〉 어떤 집에서 큰 수탉 한 마리를 잡아 주면서 이 닭을 팔아서 100원 회원권으로 충당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 순간 우리 일행들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말씀만 들어도 고맙다며 사양을 하고 돌아서자 40세 전후의 중년의 농민은 기어코 한 번 마음에 둔 일이니 가지고 가달라면서 손수 짚으로 닭의 날개와 발목을 묶어서 내밀었다. 나는 이 닭을 받아들고 그 집의 사립문을 나와 골목에서 닭을 풀어 주고 돌아섰다. -이근태 (전문부 정치과 2회)

〈광양〉 1947년경 광양군 진월면의 유지였던 김이수씨가 자진해서 조선대학교 설립기금 모금운동을 하고 다녔다. 그는 일제 때 일본신사를 때려 부수고 일본인 타도, 추방을 주장하다가 옥고까지 치른 애국자였기에 광양에서 행세깨나 하는 유지급이라면 기부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 -김종규 회원

모금활동과 건설에 참여했던 학생에게 수여한 공로상



▶ 권달웅 동문이 받은 건설공로상 (194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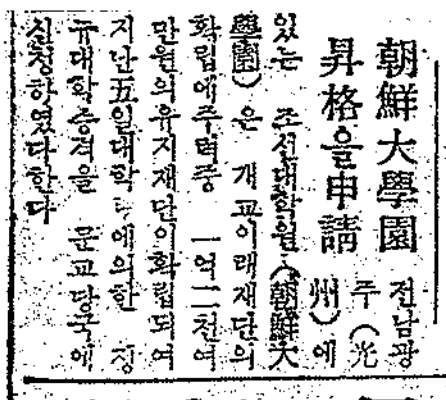
▶ 한춘홍 동문이 받은 건설특별공로상 (1949년)

2.5.3. 모금운동의 성과와 정규대학 승격의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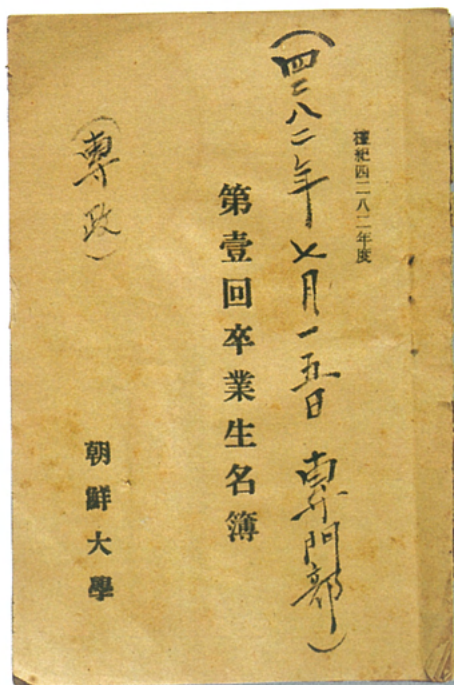
1946년 12월부터 시작되었던 설립동지회 회원 가입 및 회비 모금 활동 결과, 1948년 1월 7일에 7만 2천여 명의 회원이 확보되고 1억 2천여 만원의 유지재단을 확립하였다. 그 결과 1948년 1월 5일 정규대학의 승격을 신청 할 수 있었다.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면 도동리 조희범(曹喜範)씨 100만 원 (동광신문, 1947년 5월 30일)
- 여수 호남 고무회사 사장 김영준(金永俊)씨 기금 100만 원과 380만 원에 해당되는 건축자재 (동광신문 1947년 7월 24일)
- 광주시 대정동(현 대인동)에 사는 김말례(金末禮)여사 임야 5정보를 회사 (동광신문, 1946년 7월 24일)
- 광주시 금동 최학봉(崔學鳳)씨 논 4,600평 기증 (현 조선대학교 종합운동장 부근)
- 광주시 지산동 윤병갑(尹秉甲)씨 대학교와 부속 여자중학교로 통하는 도로를 낼 때, 자기집 울안에 위치한 감나무 밭의 중심지를 분할해서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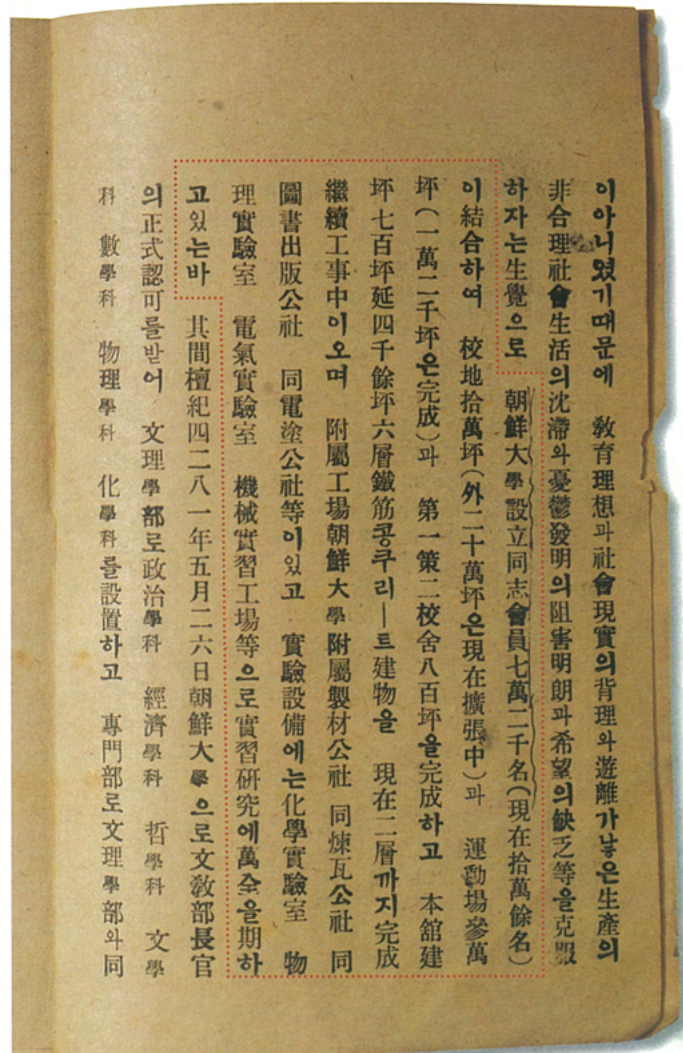
<최학봉, 윤병갑 기증 내용의 출처 『조선대학교 50년사』, 51쪽>



정규대학 승격을 신청 (조선일보, 1948년 1월 13일)



▶ 제1회 졸업생 명부 (1949년)



▶ 제1회 졸업생 명부 연혁 중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원 7만 2천 명(현재 10만여 명)이 결합하여 교지 10만 평(외 20만평은 현재 확장 중)과 운동장 3만 평(1만 2천 평은 완성)과 제1, 제2 교사 8백 평을 완성하고 본관 건평 7백평 연 4천여 평 6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현재 2층까지 완성, 계속 공사 중이오며 부속 공장 조선대학 부속 제재공사, 연와공사, 도서출판공사, 전도공사 등이 있고 실험 설비에는 화학실험실, 물리실험실, 전기실험실, 기계실습공장 등으로 실습연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바.....

3. 종합대학으로 승격

조선대학교 설립 연혁

1946. 8.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발족
1946. 9. 9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에서 조선대학원 인가 신청 광주야간대학원으로 설립 인가
1946. 9. 29	광주야간대학원 개교(4학부 12학과 1,194명 정원)
1946. 11. 23	광주야간대학원을 조선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1946. 12. 1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취지문(회원가입 권유문)을 발표하고 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 시작
1947. 12. 31	설립동지회원 7만 2천여 명 확보
1948. 5. 25	재단법인 조선대학 설립 인가, 조선대학원을 조선대학으로 개편
1949. 6. 25	전문부 제1회 졸업(설립동지회원 10만여 명 확보)
1953. 3. 10	조선대학이 조선대학교(종합대학)로 승격, 대학원 설립

조선대학교 교가

작사: 김 기 림 작곡: 하 길 담

*moderato
maestoso* 校 歌

막는 - 것 산이거든 무느 - 곤 못 가 라 - 파
도 건 눈 보 라 건 박 - 차 해 치 자
끓는 땀 - 부 어 서 일 일 이 다 진 터 희
망 - 은 솟는 다 조 선 대 학
끓는 땀 - 부 어 서 일 일 이 다 진 터 희
망 - 은 솟는 다 조 선 대 학

- 1절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느 곤 못 가라 파도건 눈보라건 박차 헤치자
끓는 땀 부어서 일일이 다진 터 희망은 솟는다 조선대학
(후렴) 끓는 땀 부어서 일일이 다진 터 희망은 솟는다 조선대학
- 2절 열어라 닫히었던 세기의 창을 다가드는 새 풍조 팔벌려 안자
진리의 빛 따라 모여든 젊은이 미래는 우리 것 조선대학
- 3절 구름 속 손짓하는 조국의 깃발 그 아래 다 바치리 청춘도 꿈도
시련의 밤 새인 민족의 앞길 새날은 터온다 조선대학

民族的指導者들이
數千數萬이
培育됨도록
祝

3.1. 광주야간대학원

광주야간대학원의 설립 허가를 받고 교사(校舍) 건설 계획을 마련한 후, 광주상업전수학교, 서중학교, 서석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관음사 강당 등에 임시 강의실을 두고 1946년 9월 29일 역사적인 첫 개강을 하였다. 그 후 같은 해 11월 23일, 인가 신청할 때의 명칭인 '조선대학원' 이름을 되찾게 된다.



서석초등학교 (1948년)



중앙초등학교 (1989년)



서중학교(현 광주제일고) 강당 (1940년대)

초기 교수진

광주야간대학원의 초창기 교수진은 주로 호남 출신으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엘리트들로 조선대학의 설립이념에 뜻을 같이해 무보수 강의를 자처했다.

광주지방법원 부장이었던 김쌍봉 판사를 비롯한 판사, 변호사들이 정치경제학부와 법학부의 수업을 전담했으며 광주사범학교, 광주 고등보통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던 기두석, 송홍 등이 문리학부의 교수로서 경제학, 국사를 가르쳤다.

특히 곽찬신 판사나 송홍 선생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주역들로 학생들에게 민족적 자존심을 고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담양 출신의 이한기 교수는 1980년대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인물로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 조선대학에서 정치사와 국제 공법을 가르쳤으며 서양화 교수였던 백영수나 천경자는 당시 이미 여러 차례의 전시회를 열어 주목을 받고 있던 전국적인 화가였다.

공학부의 교수들은 조선이화학주식회사 사장, 흥아화학주식회사 공장 대리, 삼호제동소기능과장, 종방공장장 등 생산공장의 실무자나 경영자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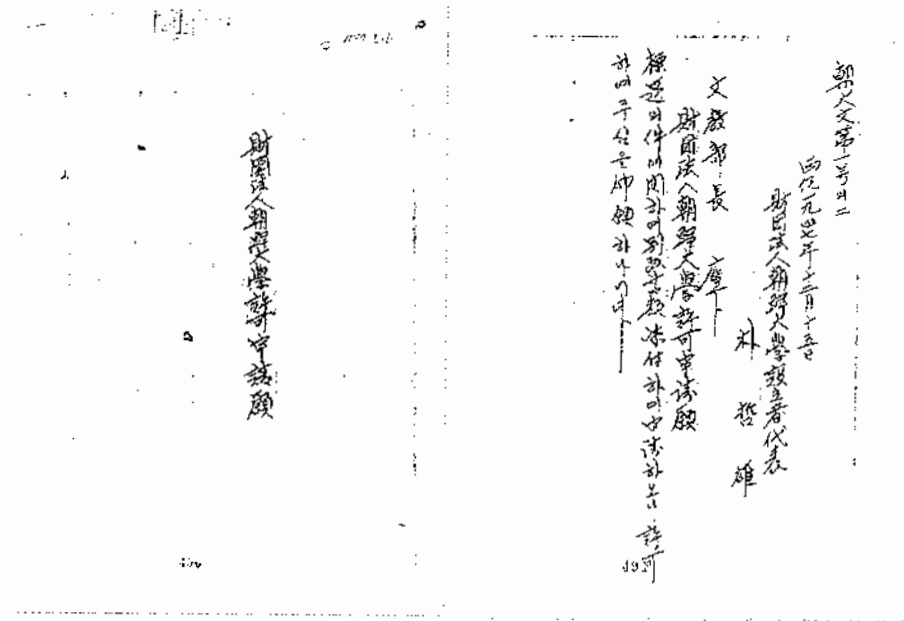


▶ 광주야간대학원 개원 당시 정치경제학부장 최윤모 (당시 광주지원 판사)

民族的指導者들이
數千數萬이
培育되
음도록
祝

3.2. 조선대학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황토로라도 담을 쌓고 창호지로라도 문을 발라서 허청에서라도 한 자를 아는 사람은 한 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민족 문화를 건설하겠다는 뜻이 통하여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1948년 5월 25일 정규 4년제 '조선대학'으로 승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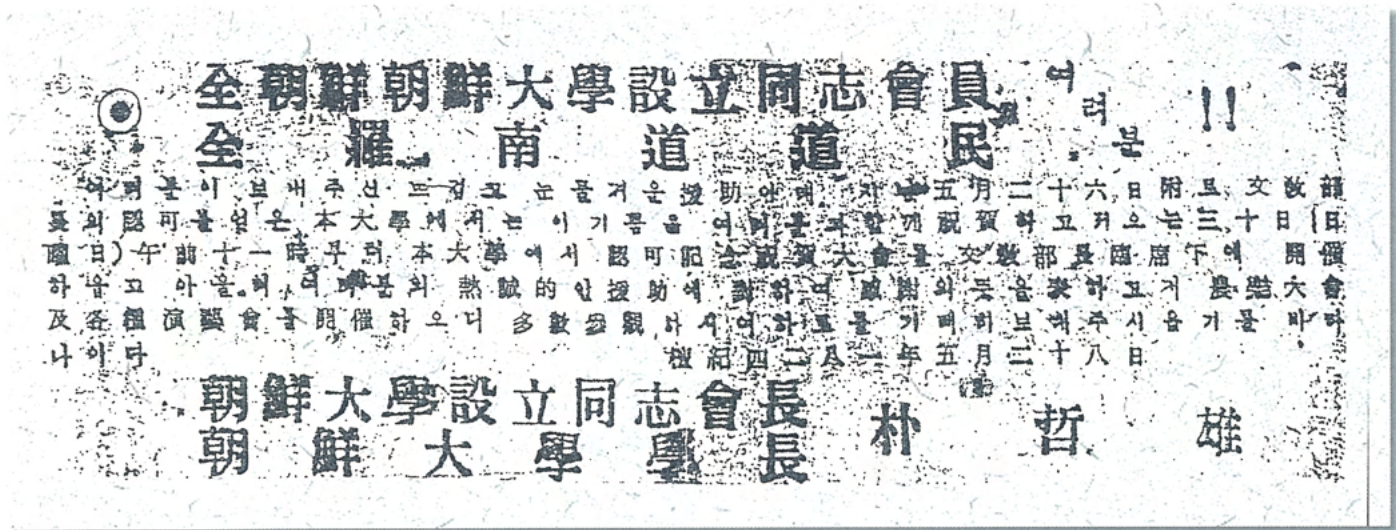
재단법인 조선대학 허가신청원 (1947년 12월 15일)

光州朝鮮大學認可
七萬二千名の淨財集結

光州(光州)에 있는 조선대학은 7만2천명의淨財集結을 달성하였다. 이 대학은 1948년 5월 25일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이 대학은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대학은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대학은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國大劇場서 「惡路」 공연
한민족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대학은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대학은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조선대학인가 보도 (조선일보 1948년 5월 27일)



▶ 정규대학 인가 기념 축하대회 공고문 (동광신문 1948년 5월 29일)

문교부 고등교육국장이 인가장을 읽자...

어려웠던 인가절차 과정에서 특히 감동적인 사건은 7만 2천 명의 회원권 약정서류를 가득 담은 8개의 대형 상자를 직접 보고 탄복을 아끼지 않았다는 오천석 문교부장관의 감동 어린 인가 약속이었습니다. 드디어 조선대학이 문교부 인가를 받았다는 소문이 광주에 퍼지게 되었고, 환영하기 위해 나온 인파가 송정리역을 가득 메우다시피 했는데 이때는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당시 문교부 고등교육국장이었던 정준모씨가 직접 광주까지 내려와서 당시 부속중학교 자리, 1동과 2동 사이에 있는 계단(현 대학원과 학생회관 중앙 사이의 계단)에서 인가장을 읽자 모두가 기뻐하면서 환호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 김택주 동문 (제3대, 제5대 총장 역임)

民族的指導者는
數千數萬이培育되음도록祝

3.3. 조선대학교

민족의 크나큰 상처였던 6.25 전쟁으로 한창 성장해 가던 조선대학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설립동지회가 와해되었다. 그러나 파괴된 시설의 복구와 중단된 건설의 지속, 내적 성장을 과제로 학교 재건에 대한 노력은 의욕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1953년 3월 10일 종합대학 '조선대학교'로 승격하였다.

月26日 (火요일)
전 남 일 보
(陰曆巳年4月14日丁亥)

노물어린金字塔蒼空에 矗立



燦然 朝大의 建設譜

大學으로 昇格의 威風을 誇示
大志를 품고 研究하는 數千의 英才

民國卅四年(一九四五年)五月, 朝鮮大學校가 獨立된 후, 卅五年(一九四六年)에 大學으로 昇格하였다. 이 때부터 朝大의 建設은 燦然히 시작되었다. 數千의 英才가 大志를 품고 研究하는 데에 몰두하였다. 이 建設譜는 朝大의 威風을 誇示하는 寶證이다.

獨立된 女大의 設計

學費貸與는 朝大의 特色

獨立된 女大의 設計는 學費貸與를 特色으로 삼았다. 이는 貧困한 學生들이 大學에 入學할 수 있도록 하는 善舉이다. 朝大의 學費貸與는 數千의 英才가 大志를 품고 研究하는 데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寶證이다.

一、財源概要

1. 總額 三百十五萬
2. 財源 三百十五萬

二、機構

1. 總務處 八二名
2. 敎授會 八二名
3. 助敎授 一九名
4. 助敎授 一九名
5. 助敎授 一九名
6. 助敎授 一九名
7. 助敎授 一九名
8. 助敎授 一九名
9. 助敎授 一九名
10. 助敎授 一九名

三、附屬機關

1. 附屬機關 八二名
2. 附屬機關 八二名
3. 附屬機關 八二名
4. 附屬機關 八二名
5. 附屬機關 八二名
6. 附屬機關 八二名
7. 附屬機關 八二名
8. 附屬機關 八二名
9. 附屬機關 八二名
10. 附屬機關 八二名

四、附屬機關

1. 附屬機關 八二名
2. 附屬機關 八二名
3. 附屬機關 八二名
4. 附屬機關 八二名
5. 附屬機關 八二名
6. 附屬機關 八二名
7. 附屬機關 八二名
8. 附屬機關 八二名
9. 附屬機關 八二名
10. 附屬機關 八二名

五、施設計劃

1. 施設計劃 八二名
2. 施設計劃 八二名
3. 施設計劃 八二名
4. 施設計劃 八二名
5. 施設計劃 八二名
6. 施設計劃 八二名
7. 施設計劃 八二名
8. 施設計劃 八二名
9. 施設計劃 八二名
10. 施設計劃 八二名

大學院

院長 總務處長 敎授會長 助敎授會長 附屬機關長 附屬機關長 附屬機關長 附屬機關長 附屬機關長 附屬機關長

法政大學

學長 李恩泰氏

(第824號) 植紀4266年西紀1953年 5月26日 (火曜日) (晚明巳年4月14日丁亥)

노름이런金字塔蒼空에繼立

燦然／朝大의建設譜

大志를昇格한威風을誇示
大志를昇格한威風을誇示
大志를昇格한威風을誇示



獨立男女大設計

學費食費與七朝大의特色

一 財源難求
二 校務難求
三 校舍難求
四 宿舍難求
五 膳食難求

教育自治制의反響

教育稅徵收不振
不足徵收增進教育事業出資

教育의生産을併行

工場生産與教育生産

附屬中學

附屬中學

附屬小學

附屬小學

大成篇

大成篇

附屬中學

附屬中學

附屬小學

附屬小學

附屬小學

附屬小學

大成篇

大成篇

附屬中學

附屬中學

附屬小學

附屬小學

附屬小學

附屬小學

大成篇

大成篇

▶ 종합대학 승격을 크게 보도한 전남일보 (1953년 5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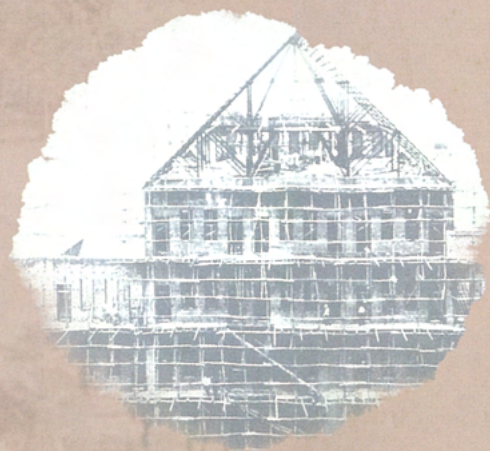
民族의指導者들
數千數萬이
培育되옵도록
祝



II

세계 열강의 어느 역사적 대학보다도

1. 캠퍼스의 완성
2. 대학과 대학원
3. 백악의 삶



1. 캠퍼스의 완성

1.1. 1947년, 무등산 자락에 터를 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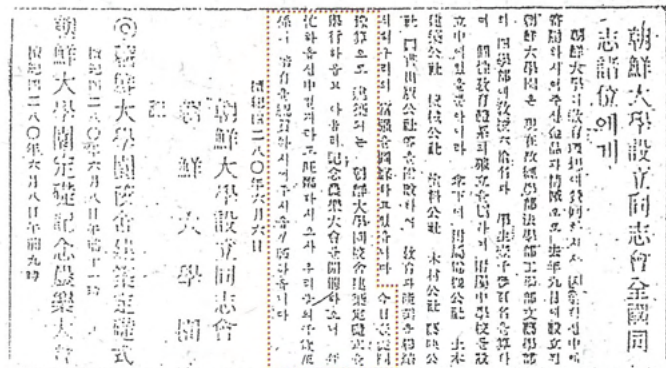
서민호 전남도지사의 강력한 뒷받침과 행정기관의 절대적인 협조 아래 설립동지회 집행위원회 한규중 부회장, 정흥석 총무, 그리고 고문이었던 송화식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중심이 되어 무등산 서능 아래 서석동 375번지 주변의 야산 일대를 대학 부지로 선정하였다. 당시의 보도에 따르면 총평수는 30만 평, 종합운동장은 3만 5천 평에 이르는 광대한 규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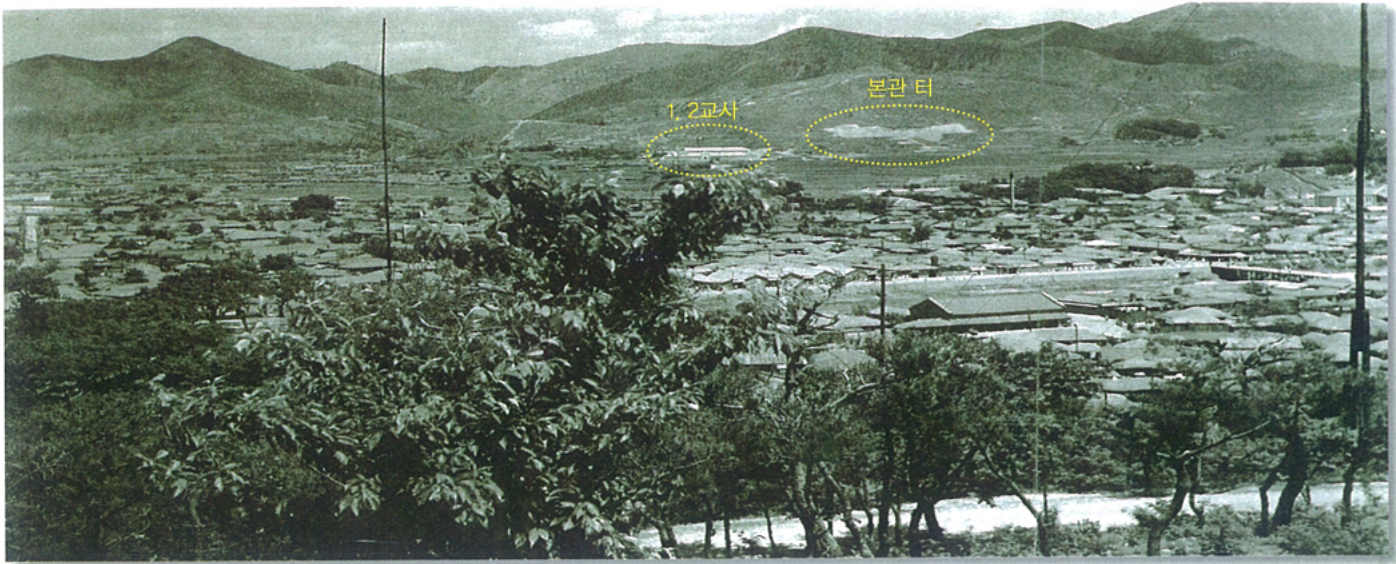
▶ 조선대학원 제1교사 건축 정초식 (1947년 6월 8일)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전국동지 제위에게

.....조선대학의 교육 이상에 찬동하시어 곤궁하신 중에도 기증하시여 주신 금품과 정성으로..... 금일 1억 원 예산으로 건축되는 조선대학원 교사 건축 정초식을 거행 하옵고 아울러 기념 농악대회를 개최하오니 분망하오신 중일지라도 왕림하시오사 천세만송의 배움을 축하하시어 주시옵기 원하옵니다.



▶ 조선대학원 교사 건축 정초식 거행 보도 (동광신문, 1947년 6월 7일)



▶ 1948년 사직공원에서 바라본 조선대학
-제1, 2교사의 오른쪽에 본관 건설 터가 닦여 있는 모습



▶ 1949년의 제1교사 (현 대학원), 제2교사 (현 학생회관 자리)와 그 뒤에 보이는 건축 중인 본관

民族的指導者를
數千數萬이
培育되
옵도록
祝願

1.2. 제1기 공사(1948년~1954년)

교실 한 칸 없이 개교한 뒤 설립동지회원들의 활동과 모금을 바탕으로 교사를 지어나갔다. 1947년 정규대학 승격 요건을 갖 추기 위해 우선 목조건물 2동을 지은 후, 1948년부터 현재의 본관을 짓기 시작하였다. 초기 건물의 개축을 거쳐 1949년 3월 20일에 제대로 된 첫 교사 두 동(둘 다 단층으로 856평과 848평)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1954년에 이르러 7층에 3,200평인 본 관과 2층에 520평인 부교사가 완성되었다. 건설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지 7년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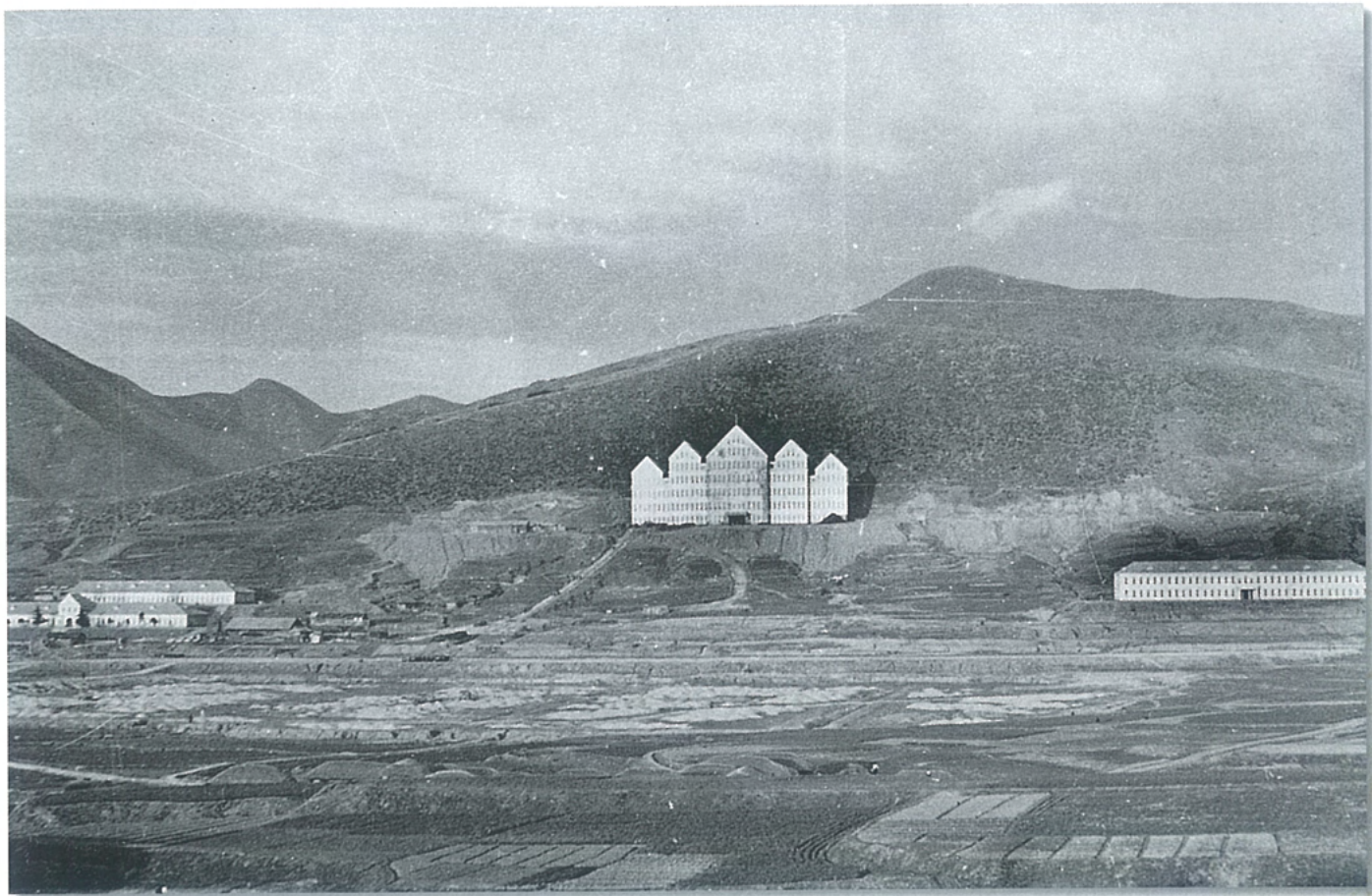
제1기 공사 신축 건물과 쓰임새

연도	제1교사	제2교사	본관	부속고등학교
1947	조선대학원 목조 임시 건물	부속중학원 목조 임시 건물	터 닦기	
1949	완성 건물 (1층 856평) 대학 본관	완성 건물 (1층 848평) 부속중학교	신축 공사	
1954	부속중학교	부속고등학교	중앙 5개 동 완성 (7층 3,200평)	제1교사 완성 (2층 52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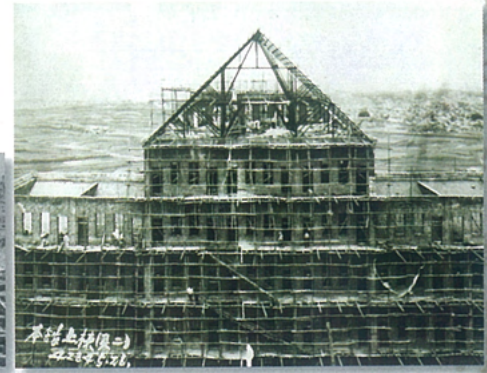
현재 무등산 산록에 제1기 공사로 신축 중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본관(건평 300평 6층 건물)이 건축자재 문제에 있어서는 남 한에서 가장 결핍하고 있는 철제를 수백 톤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에 1만 5천매의 생산 능력을 갖는 동 대학 직영 벽돌공장이 있다. 그리고 역시 직영 제제소와 3백 정보의 산판(보성군 문덕면 소재)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자급자족 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그 리고 노력에 있어서는 특수노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학생들이 근로의 성한을 흘리고 있다. (동광신문, 1949년 6월 12일)



▶ 1954년 제1기 공사 및 부속고등학교 낙성 축하탑



▶ 1954년 5월 제1기 공사가 완료된 조선대학교 전경
- 무등산 자락에서 광주를 한 눈에 굽어보는 자리에 본관, 부속중학교 (왼편)와 부속고등학교 (오른편)가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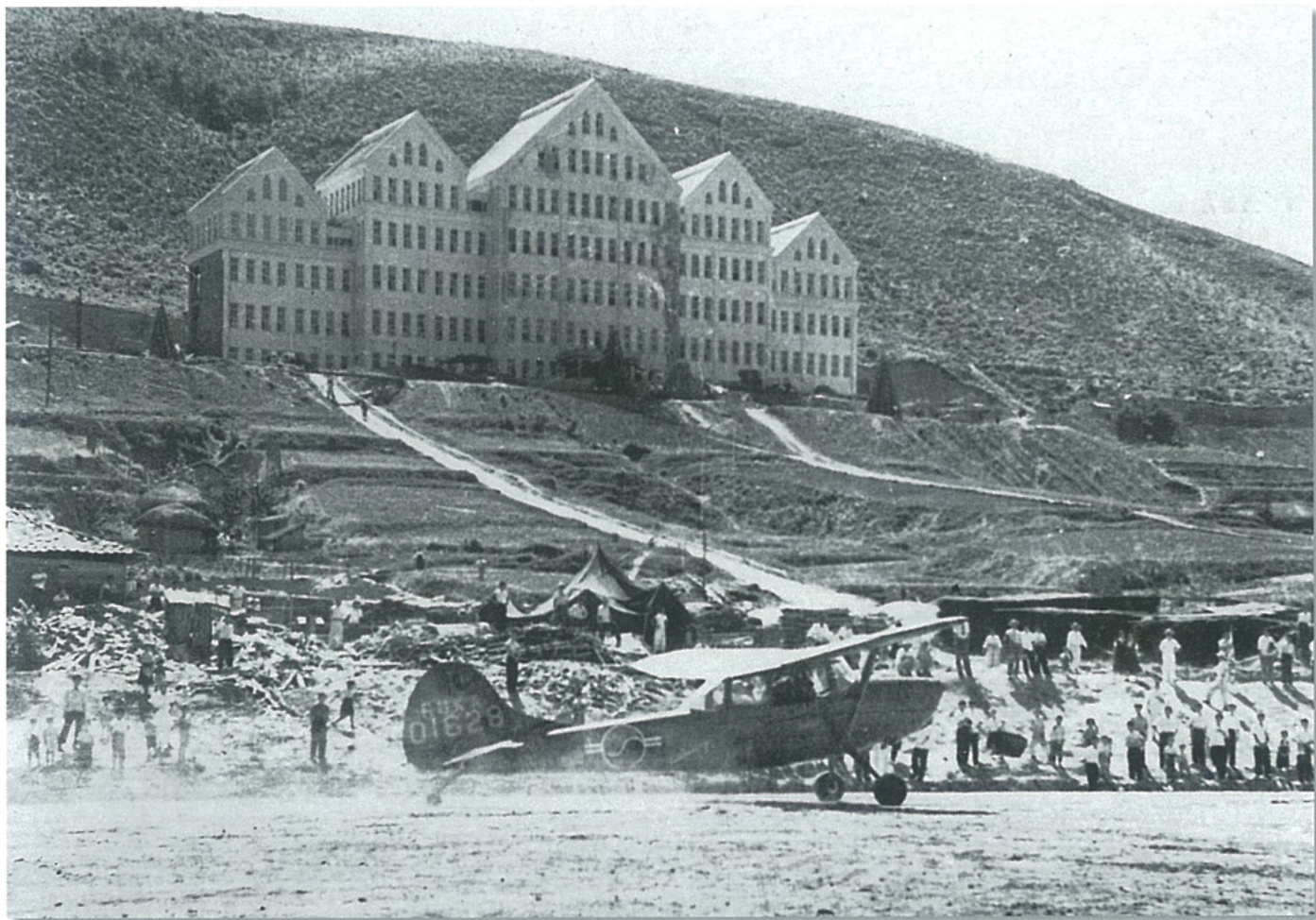


▶ 1951년 신축 중인 본관
- 본관 왼편에 직영 벽돌공장과 그 아래 제재소가 있다. 본관 비탈면의 레일은 건축자재를 옮기던 중요한 운반수단이었다.
본관 건물은 1951년 5월 26일에 상량식을 했다

民族的指導者를 數千數萬이 培育되 음도록 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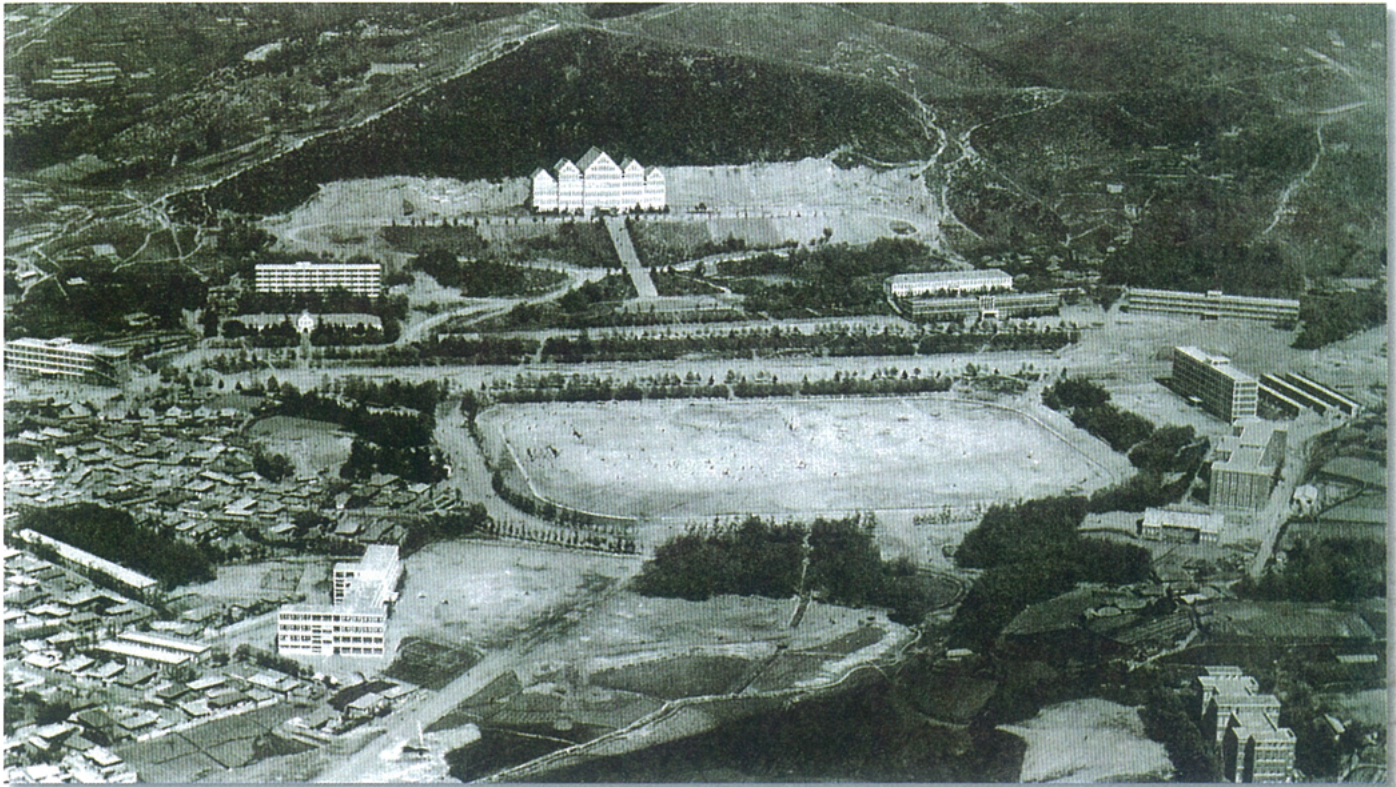
1.3. 제2기 공사(1955년 이후)

1955년부터 각 단과대학의 건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건설계획 아래 제2기 공사가 시작되어 1957년까지 여자대학, 공과대학 실습공장, 종합운동장이 완성되었다. 1963년 12월 8일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로 조선대학교 교육지구 132만 평이 확정되어 8개 단과대학, 실업초급대학, 여자초급대학, 공업전문대학, 4개 부속학교의 규모가 되었다. 이후 각 단과대학의 독립건물 신축 계획이 세워진지 40여년 만에 거의 완성된 모습을 갖게 된다. 사범·사회과학대학, 미술대학이 들어서고 체육관이 완공되었으며, 공과대학이 자리를 잡았다.



▶ 활주로 완성을 축하하는 기념 비행 (1957년)
- 당시 국내외 저명 교수와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民族的指導者들이
數千數萬이
培育되옵도록
祝



▶ 1965년의 전경



▶ 1993년의 전경

- 제1교사였던 건물은 부속중학교와 미술대학을 거쳐 대학원이 되었고, 바로 뒤 건물은 부속고등학교, 여자대학을 거쳐 1966년부터 2003년까지 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대학원 아래쪽의 주황색 지붕은 1991년 만들어진 생활협동조합 건물로 지금의 서식출이 지어지기까지 학생 식당과 서점 등이 있던 조립식 건물이다. 현재의 치과병원과 치과대학 자리는 테니스장이었다.

1.4. 현재의 캠퍼스

2000년에 수립된 중단기 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조선대인들에게는 연구와 교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 지역민들에게는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춘 기숙사(백학학사 2002년, 글로벌하우스 2011년에 완공)가 지어지고 2003년에 중앙도서관이 개관했다. 유니버시티 파크 계획에 따라 호수공원과 장미원 등 아름다운 녹지 공간이 캠퍼스를 수놓고, 민주화 운동사를 담은 민주공원이 조성되어 조선대학교의 정신과 전통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 2011년의 캠퍼스



民族의指導者들이
數千數萬이
培育됨도록
祝

2. 대학과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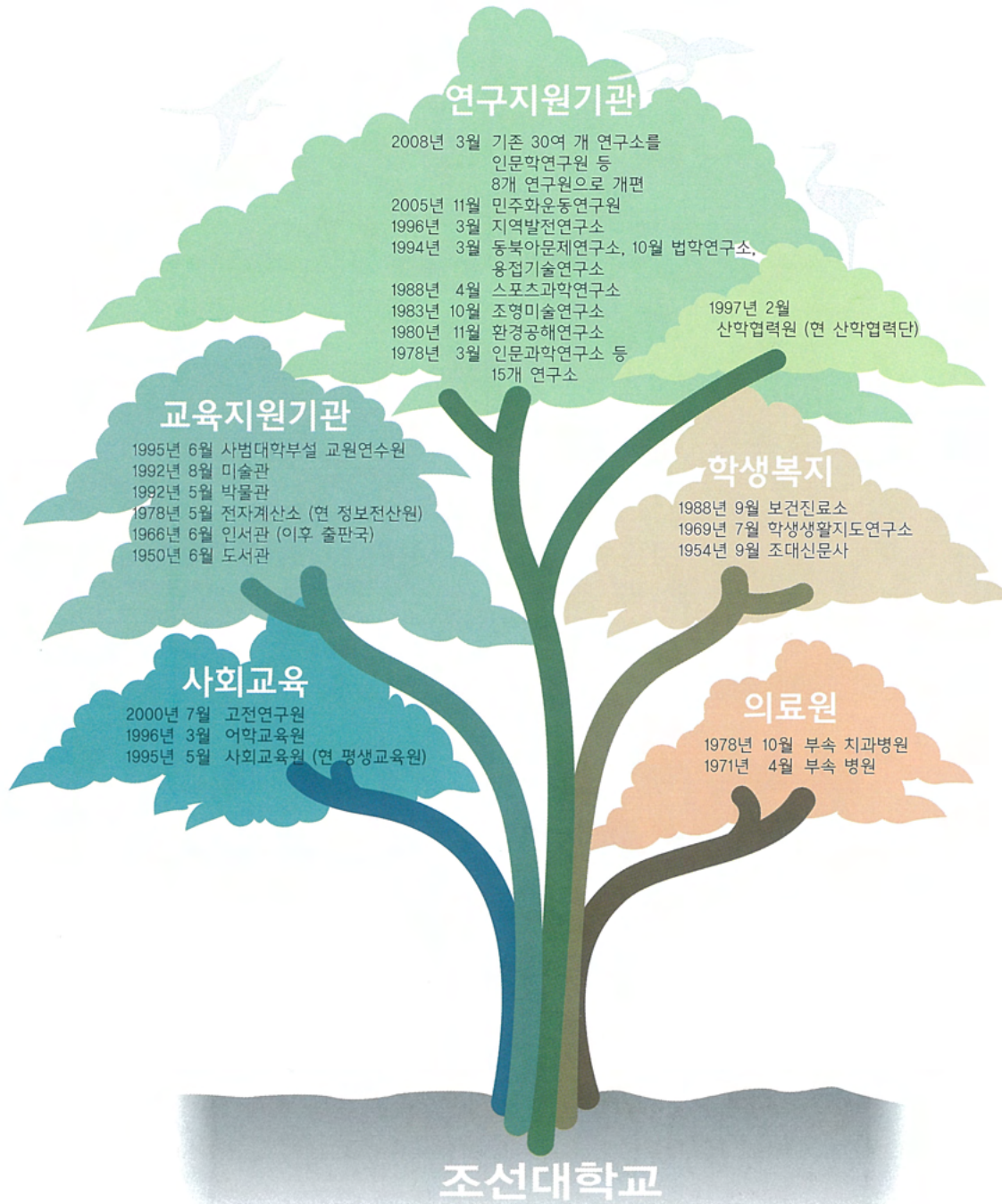
2.1. 대학 · 대학원

1946년 9월 29일 4학부 12학과로 개교한 후, 지난 65년 간 성장을 거듭해 현재 인문과학대학 등 15개 단과대학에 75개 학과(부)와 4개 독립학부가 있다. 그리고 일반대학원을 비롯하여 9개 대학원이 있다.



2.2. 기타 기관

교육·연구·사회봉사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교육 지원, 연구지원 제도, 후생 복지 시설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 결과 도서관, 정보전산원, 박물관, 미술관 등 부속기관과 연구기관, 의료원,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기관들이 설치되었다.



3. 백악의 삶

3.1. 입학

1946년 1,194명의 첫 학생들이 입학한 이래, 2010년에는 총 5,126명의 학생이 들어왔다.



입학식 (1966년 3월)



교복차림의 입학 기념 사진 (1959년)



합격자 발표 (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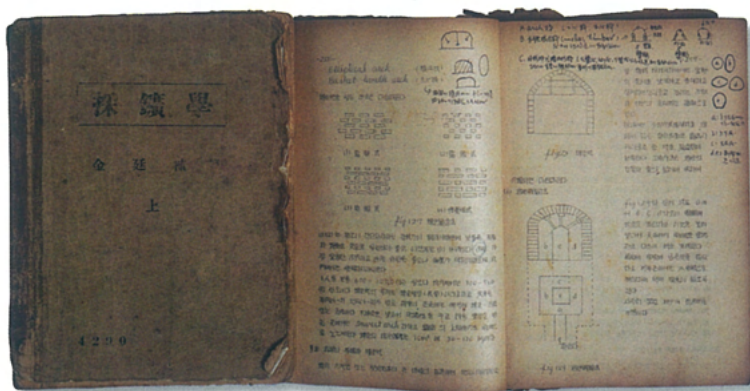
3.2. 학창생활



▶ 학술연구회를 마치고 (1949년)



▶ 전국학도호국단 체육대회 육상부 우승 (19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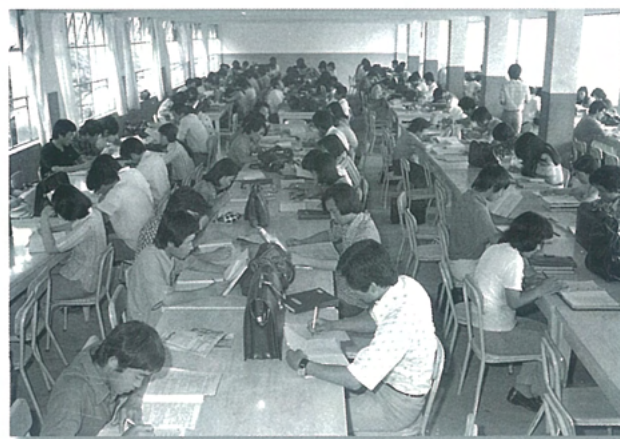
▶ 등사본 『채광학』 교과서 (1957년)



▶ 여자대학 실습 (1960년대)



▶ 광산학과 실습 (1966년)



▶ 도서관 (1970년대)

民族的指導者는 數千數萬이 培育되옵도록 祝



▶ 법정대학의 모의국회 (1959년)



▶ 음악교육과 발표회 (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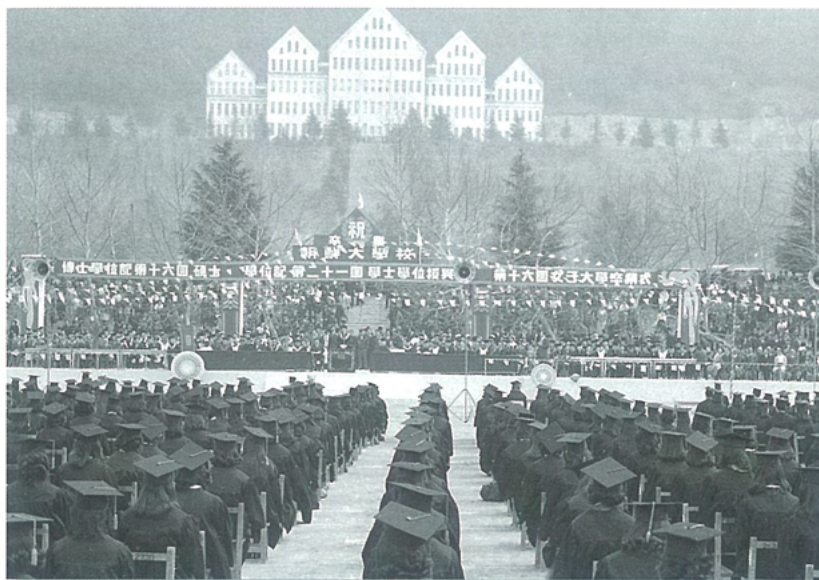
▶ MT (1969년)



▶ 봉사 활동 (1972년)

3.3. 졸업

1949년 6월 25일 전문부 1회 370명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학사 4,694명, 석사 678명, 박사 213명을 길러냈다.



▶ 제21회 졸업식 (1972년)



▶ 제6회 졸업식 (1957년)



▶ 제1회 여대졸업식 (1957년)



▶ 사은회 (1967년)



▶ 동창회에 모인 동문들 (1966년)

III

문화는 언제든지 영재가 창조 발현하여

1. 민족의 앞에 서서
2. 문화의 품을 넓히고
3. 세계를 무대로



蒼空에 빛이 나

그리운 冬園

無頭山中復은 아름답게

潤色 仁明

希望은 冬徒를 가득이

안고

별지 않은 밤날을

期待하고

이 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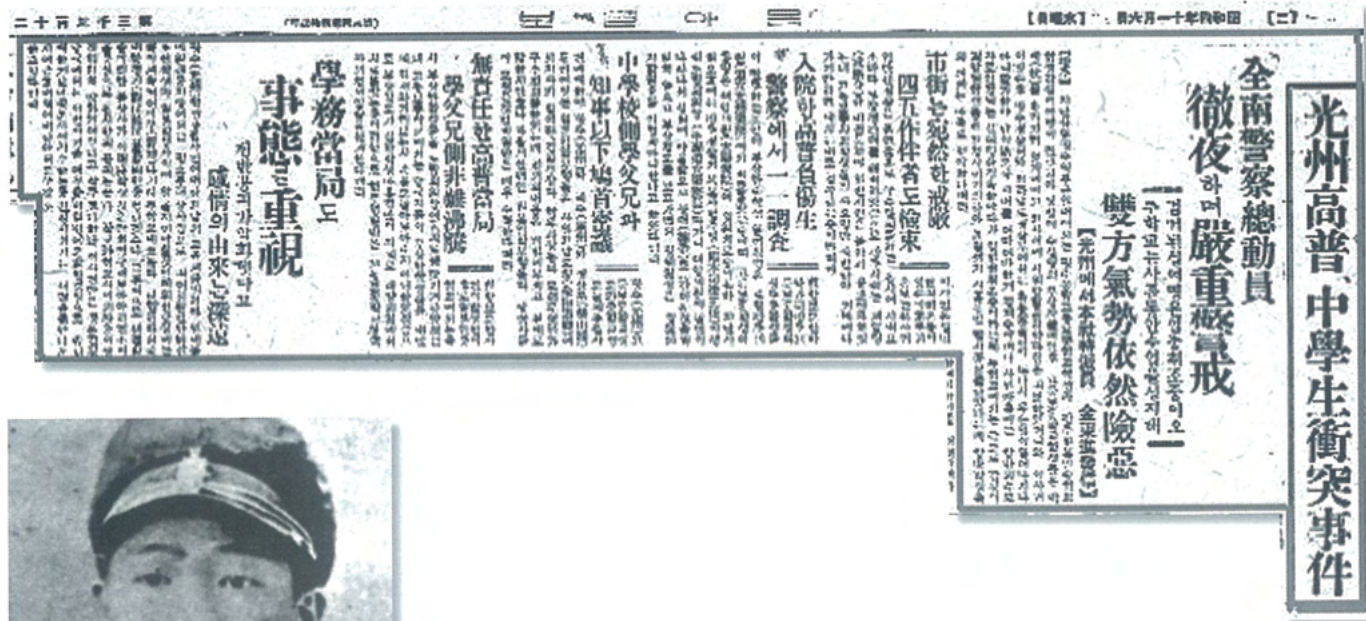


1948. 1. 23.

朝大會員募集 木浦 務安 兩郡 出發時

1. 민족의 앞에 서서

1.1. 박준채 교수(1914~2001)와 광주학생독립운동



▶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의 박준채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항일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직접 계기는 1929년 10월 30일에 나주·광주 간 통학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본인과 한국인 학생들 간의 충돌이었다.

당시 광주고등보통학교 2학년이던 박준채는 일본인 학생이 그의 사촌누이 박기옥 등 3명의 여학생을 희롱하자 격분하여 싸움을 벌였다. 이 일로 그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3개월간 옥고를 치렀으며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하였다.

그는 이후 서울 양정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해 학업을 마친 뒤 일본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에 진학하였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법정대학 경제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실천하는 양심으로 숭수수범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길러 주었다.



1.2. 김학준 교수(1908~1975)와 농촌계몽운동



▶ 동아일보에 연재된 상록수 (1935~1936년)



일제시대에 농민운동과 동지적 사랑을 그린 감명깊은 심훈의 『상록수』는 바로 김학준 교수를 모델로 한 작품이다. 그는 소설의 주인공 최용신의 약혼자로서 최용신이 농촌계몽운동에 나서게 된 원동력이었다.

1960년부터 1975년까지 법정대학에 재직하였던 김학준 교수는 최용신이 활동하던 샘골의 야학당 자리 (현 안산시 본오동)에 고등농민학원을 설립하고 그 유업을 이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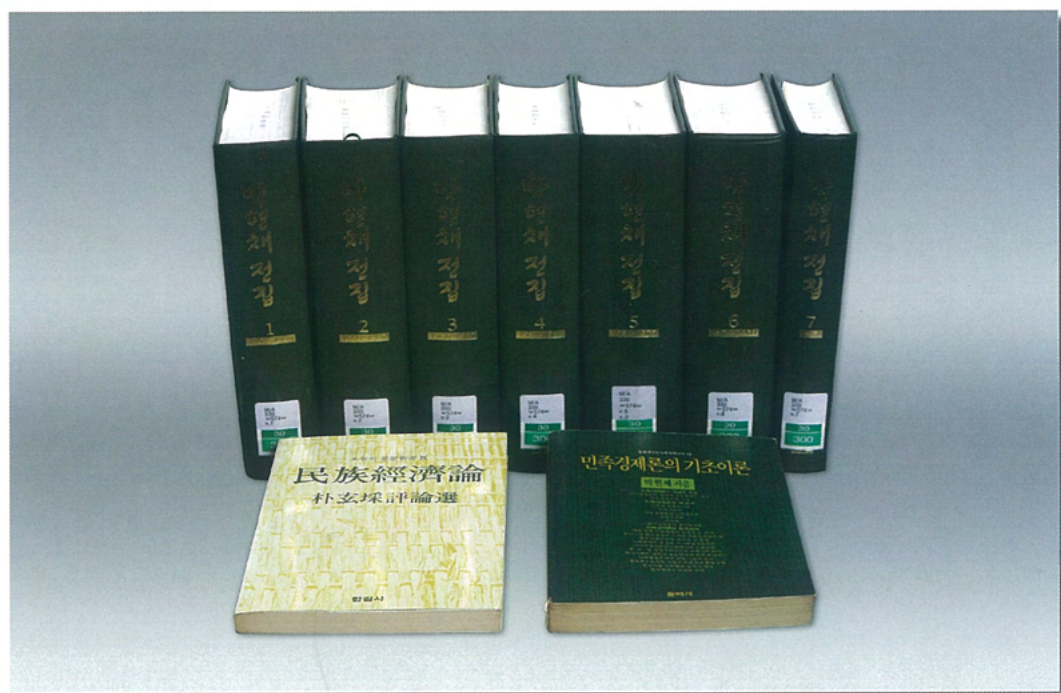


▶ 샘골에 나란히 묻힌 김학진교수와 최용신님

- 두 사람은 결혼을 못했으나 최용신 사후 그녀의 제자와 동지적 결혼을 한 김교수는 유언으로 먼저 간 그녀의 곁에 묻어달라고 당부했다. 미망인과 자녀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진리의 뜻을 같이 한 동지로서 남달리 농촌계몽운동에 뜻을 이루고자 수 많은 역경에서 사랑을 비추다 고이 잠드신 상록수 주인공들이여"라고 새긴 비석을 세웠다.

民族的指導者들이數千數萬이培育되옵도록祝

1.3. 박현채 교수(1934~1995)와 민족경제론



▶ 박현채 선생의 저서



1989년부터 1995년까지 경상대학 경제학과에 재직했던 박현채 교수는 소년시절에 빨치산 전사였으며, 하산 이후 광주서중, 전주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수학한 뒤 민족경제론, 민중경제론을 주창하였다.

그의 민족경제론은 산업화 과정의 문제들을 규명하고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한국식 정치경제학으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과 농업을 진흥하여 대외의존에서 벗어난 자립경제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과 조국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애쓴 시대의 스승이었다.

1.4. 이돈명 총장(1922~2011)과 인권운동



▶ 1986년 12월 후배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범인 은닉' 사건으로 구속된 이돈명 변호사

1949년 조선대학 전문부 정치학과를 1회로 졸업하였다. 1954년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후, 1974년 유신독재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변론을 맡으며 인권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인혁당 사건,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YH 사건, 미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광주민중항쟁 등 우리나라 현대사에 깊이 새겨질 대형 시국사건 변호사로 활약하며 줄곧 민주화 인사의 법적 보루이자 동반자로 살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신인 '정의실현법조인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조선대학교가 학원자주화를 이룩하고 추대한 첫 직선 총장(1988~1991년, 제8대 총장)으로 조선대학교 제2도약의 초석을 다졌다.



▶ 1회로 입학한 이돈명 총장과 동기생들
- 아래 왼쪽 첫번째가 이돈명총장

1.5. 조선대학교 구성원의 민주화 운동



▶ 1980년 5월 17일 도청을 향해 행진하는 조선대학교 학생들



▶ 민주공원 내의 민주화운동 기념탑

1987년 5월 전국을 뒤흔들었던 민주화운동과 맞물려 조선대학교에서는 제왕적 족벌 경영을 극복하고자 학원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때, 학생들은 수업거부와 장기농성 투쟁으로, 교수들은 양심선언으로, 동문들과 시민들은 지지서명 등 정신적·물질적 후원으로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113일간의 장기 농성 투쟁장에 경찰이 강제 진입한 1988년 1월 8일은 민족자주교육과 인간중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대학교의 새 역사가 전개되는 분수령이 되었다. 학원민주화 이후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 민주적 합의 기구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른다.

여기에는 4.19부터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운동의 한 축으로 활동했던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녹아있으며 대학민주화운동의 신기원을 이룩함과 동시에 한국 민주화운동에 있어서도 기념비적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 1987년 학원민주화 운동



▶ 1.8 항쟁 기념비

民族的指導者들이
數千數萬이
培育되
옵도록
祝

2. 문화의 품을 넓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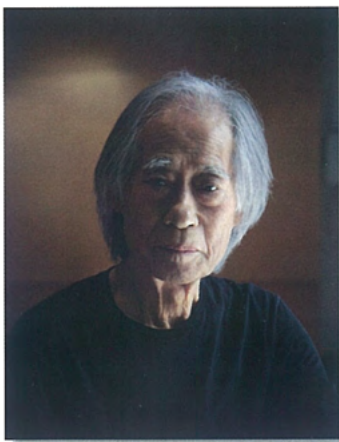
2.1. 김보현(1917 ~), 한국 추상회화 1세대



▶ 백합, 1955년, 31×40, 조선대학교 미술관 소장



▶ Daydream in Studio II, 1981, Oil on canvas, 198 x 15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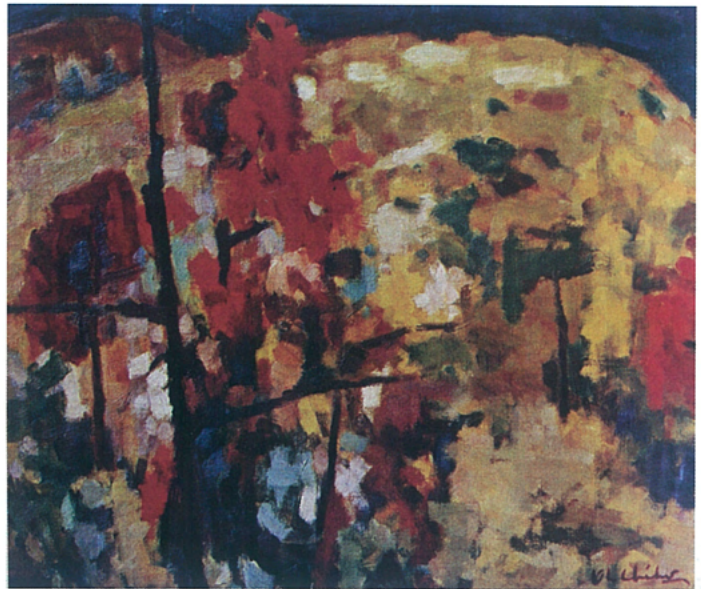
개교와 함께 설립된 문예학부 예술과의 유일한 전임 교수로서 1946년부터 1955년까지 재직하면서 초대학장을 맡아 미술대학의 기틀을 다졌다. 그는 “조선대 예술과 설립 초기에 강의실이 부족해 증심사에 천막을 치고 학생들과 그림을 그렸고 밤이면 인근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공부를 했다.”고 회고한다.

이렇게 조선대학교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그는 1955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교환교수로 건너간 이후 동양적 감성의 추상표현주의 작가로 이름을 높였다. 90세가 넘는 지금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1년 조선대학교에 자신과 부인 실비아 올드 여사의 작품 390여 점을 기증하였다. 학교에서는 ‘김보현·실비아 올드’실을 마련하여 전시하고 있다.

오지호(1905~1982), 인상주의 화풍의 토착화



▶ 화집 1978, 전남매일신문사



▶ 추경, 캔버스에 오일, 1965, 60x50cm



1948년 광주에 정착하여 '광주미술연구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던 중, 1950년부터 10년 간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오지호 화백은 인상주의 회화와 그 화법을 우리 화단에 정착시켰으며, 작가 자신의 회화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집필 활동에도 열심이었다. 조선대학교를 나온 만아들 오승우(吳承雨, 1930~) 화백을 비롯해 그의 후손들도 몇 대에 걸쳐 우리 미술정신을 찾는 작업을 잇고 있다.



▶ 학교 사택이었던 오교수의 4칸 초가집. 오지호, 오승운 2대에 걸친 화실이 있고, 현재 광주시 지정 기념물이다.



▶ 오승우 심장생도
캔버스에 오일 171.5×171.5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民族的指導者들은數千數萬이培養된음도루祝

2.2. 김기림(1908 ~ ?)과 시대정신이 담긴 교가



▶ 김기림 교수 (앞줄 오른쪽 의자에 앉은 이)와 학생들 (1949년 5월 7일)

바다와 나비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 무우밭인가 해서 나렸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영문학자인 김기림은 시에는 시대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대의 가치를 전하는 모더니즘 시인이었다. 그는 조선대학 문예학부 초창기부터 '시론', '서양문예사조사' 등을 강의하며 조대 문학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6.25 때 납북되어 소식을 모른다.

그는 대학 건립 현장을 가슴으로 확인하고 뒷산 깃대봉에 앉아 광주 시가지와 건설 현장을 직접 보면서 우리대학 교가를 작사했다. 그의 진보적 시정신이 우리 대학의 역사에 깊이 새겨지게 된 것이다.

김현승(1913~1975)과 조대문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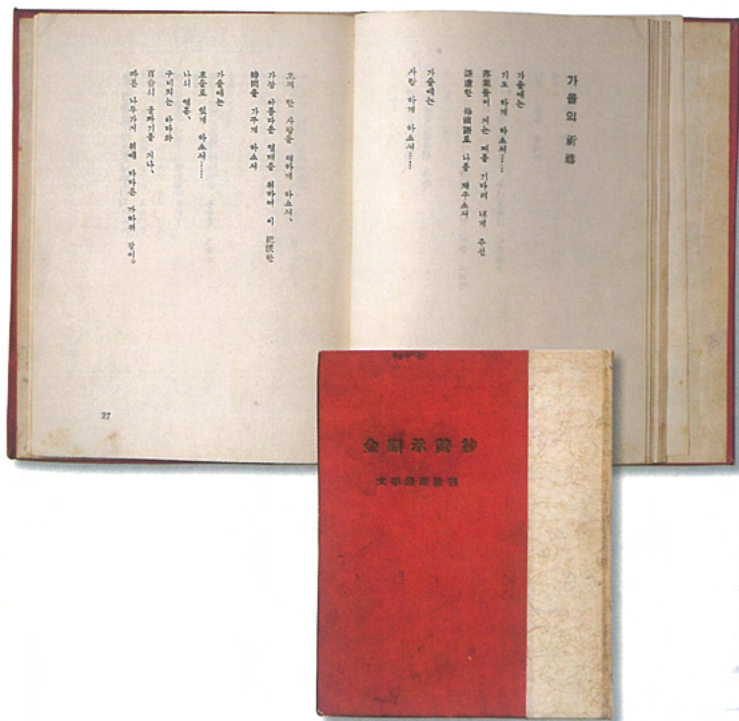
산줄기에 올라 - K도시에 바치는 노래

산줄기에 올라 바라보면
언제나 꽃처럼 피어 있는 나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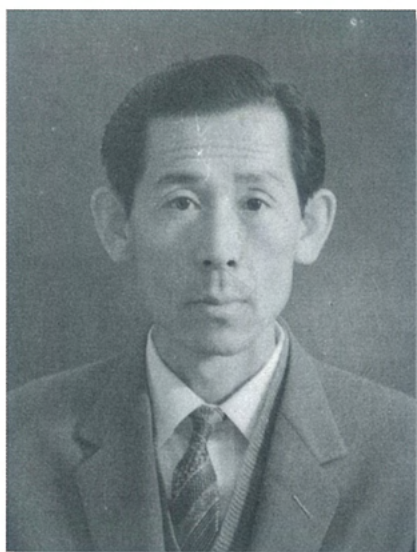
지난날 자유를 위하여
공중에 꽃힌 칼날처럼 강하게 싸우던,
그곳에선 무덤들의 푸른 잔디도
형제의 이름으로 다스렸던...

그리고 지금은 기름진 평야를 잠식하며
연기를 따라 확장하여 가는 그 넓은 주변들....

지금은 언덕과 수풀 위에 새로운 지붕들이 솟아돌라,
學問과 詩와 實驗管들이
무형의 드높은 탑을 쌓아올리는 그 象牙의 음향들...



▶ 『金顯承詩抄 (김현승시초)』 (1957년)
- 김현승 시인이 재직 시절 펴낸 첫 시집 초판



송실전문 문과에 재학 중이던 1934년에 문단에 나온 김현승의 시 세계에는 엄격한 기독교 정신과 지적인 사색의 세계가 함께 있다. 초기 작품들이 정지용, 김기림 시인에게 찬사를 받는 등 주목을 받았지만 38년부터 해방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일제 암흑기에는 시작을 중단했다.

6.25 직후 광주로 내려온 그는 조선대학교에 재직하던 시기(1951~1960년)에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눈물’ ‘플라타너스’ ‘5월의 환희’ 등을 발표했다. 스스로 “나만큼 광주에 ‘대해 애착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광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산줄기에 올라 - K도시에 바치는 노래’라는 작품에 그 마음이 담겨 있다.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박흥원, 문병란, 김규화, 박경서, 문순태 등을 추천, 등단케 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조대문학사’의 서막을 열었다.

民族的指導者는
數千數萬이
培育됨을도록
祝

2.3. 호남 역사의 발굴과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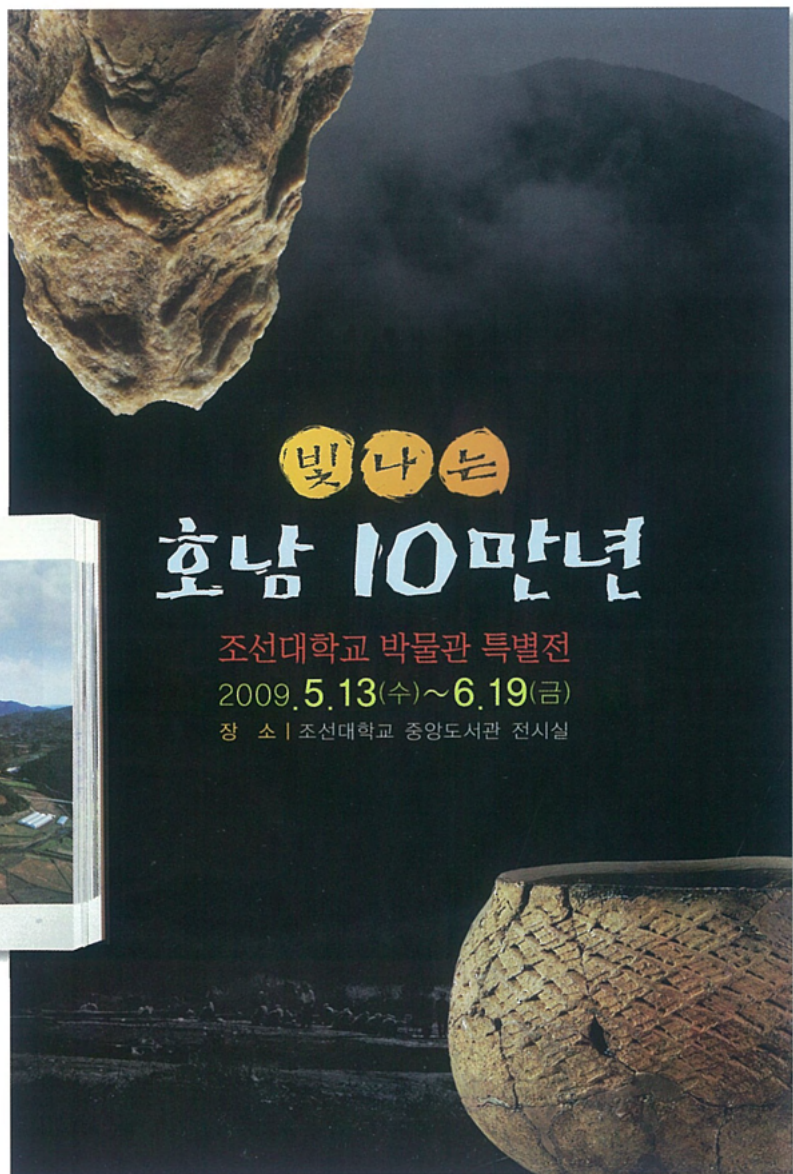
1992년 5월 15일에 개관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호남의 역사를 발굴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 걸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국가사적 순천 월평유적에서 발굴된 석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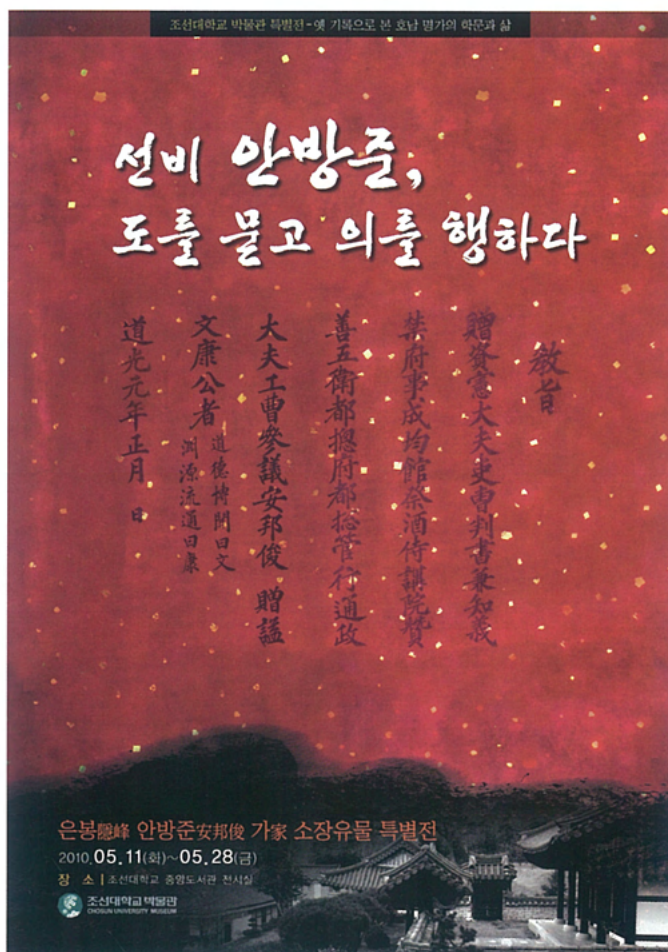


▶ 순천 월평유적 (문화재대관 『사적』, 2010년)



▶ 빛나는 호남 10만년 특별전 (2009년)

그 하나는 여러 유적의 조사를 통해 호남의 역사가 약 1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감을 밝혀낸 것이다. 박물관에서 발굴한 유적 중 문화유산의 가치가 뛰어난 순천 월평유적은 국가사적 제458호, 그리고 순천 죽내리유적과 장흥 신북유적은 각각 전라남도기념물 제172호와 제238호로 지정되었다. 다른 하나는 호남에서 활동했던 역사시대 인물들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전시와 “호남역사문화인물기행”을 진행하여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인 것이다.



▶ 은봉 안방준가 소장유물 특별전 (2010년)



▶ 호남역사문화인물기행(2001년)

3. 세계를 무대로

3.1. 내성세포연구센터, 세계에서 인정받는 연구 성과



▶ 연구성과 기술 이전식

내성세포연구센터는 정부로부터 9년에 걸쳐 약 60억 원을 지원받는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이다. 지난 2003년부터 내성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암과 감염증의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의료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센터는 국내외 관련 여러 단체와 기술협정을 맺었는데, 2010년에는 조선대학교 기술이전 사상 최고액인 3억 원의 기술 이전료를 받고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2. 이승우, 조용하고 진지한 영혼의 깊은 사유



▶ 프랑스어와 스페인어판 『식물들의 사생활』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판 『생의 이면』



2001년부터 우리대학 문예창작과에 재직 중인 이승우 교수는 1981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에리직톤의 초상’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후 대산문학상, 동서문학상, 현대문학상,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이다.

‘생의 이면’, ‘미궁에 대한 추측’ 등이 유럽과 미국에 번역, 소개되었고, 특히 2009년에 장편 『식물들의 사생활』이 한국 소설로는 처음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고본인 갈리마르 출판사의 폴리오 시리즈 목록에 올랐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르 클레지오가 노벨문학상 수상이 유력한 한국 작가로 황석영과 이승우 교수를 꼽기도 했다.

그는 소설을 통해 인간의 양면성과 삶의 이율배반을 냉철하고 진지하게 다루는 작가로, “인간은 타인과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동물”이라며 “자기 안의 검열자를 설득시키는 이기심이 이타주의利他主義를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3.3. 서수경, 유럽 미술계의 젊은 거장



▶ 무제, 1999년, 227×720, 조선대학교 미술관 소장 (졸업작품)



미술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서수경 동문은 '신표현주의 화풍'이라 불리는 독특한 한지 콜라주 기법으로 세계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졸업 후, 독일 베를린으로 건너가 유명한 독일 신표현주의의 선구자 게오르크 바젤리츠의 최초 아시아인 제자가 되었고 한지를 찢어 붙이는 작품으로 프라하, 리버풀, 베이징, 광주, 푸싱, 상하이 비엔날레 등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아 초청된 바 있다.

3.4. 김주영,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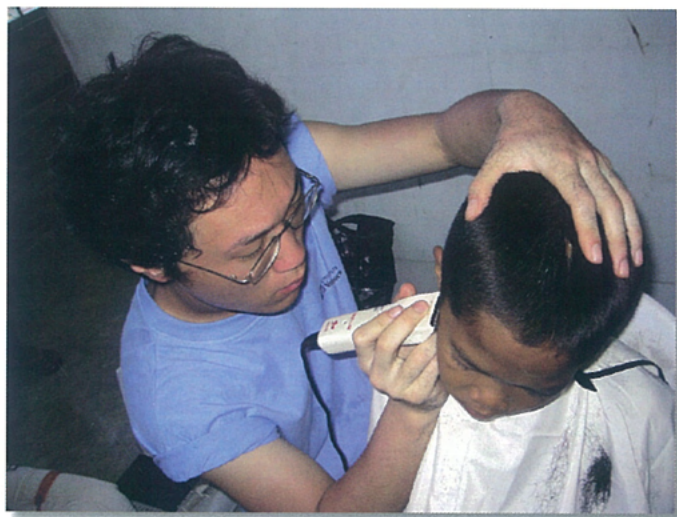
올해로 창립 61주년이 된 체육대학은 1950년 체육과로 시작한 이래 호남 체육지도자 양성의 요람이자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체육 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태권도 최연호 (2001 · 2003 · 2007 · 2009년 세계선수권 핀급 4회 우승), 김주영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 1위)을 비롯해 육상 김덕현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 ·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1위), 하키 김철 · 홍은성 · 이승일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 하키 1위), 김상열, 전재홍 (전 국가대표 감독), 축구 (홍정호, 안태은, 김주성), 역도 (나남주, 지주현, 윤상윤), 레슬링 (김효섭, 정영호, 고승진) 등 많은 선수들을 배출하여 국위를 선양했으며 많은 동문들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다.

▶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 태권도 금메달을 딴 김주영

3.5. 국제봉사, 인류애의 구현



▶ 필리핀에서의 의료봉사



러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등에서 봉사활동을 통한 현지 젊은이들과의 교류, 국제적 유대관계 강화로 인류애를 구현하고 조선대학교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봉사는 지난 2001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보다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문화와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논고

노영기 _ 민족 영재 육성의 열망, 조선대학의 설립

박진철 _ 조선대학교 65년 - 그 변화와 발전



민족 영재 육성의 열망, 조선대학교의 설립

노영기(서울대 규장각 선임연구원)

차 례

1. 머리말
2. 조선대학교의 설립 배경
3.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결성
4. 조선대학교의 설립 과정
5. 맺음말

1. 머리말

올해로 조선대학교가 설립된 지 65년이 되었다. 사람나이로 치면 환갑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조선대학교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일제 식민지를 거쳐 해방을 맞이하며 우리 민족은 내일을 위해 민족의 인재를 키울 학교,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기관을 만들고자 했었다. 이것은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민족으로서 다시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복적이 구체적인 실천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조선대학교는 이러한 숭고한 뜻에 따라 건립된 학교이다. 65년이라는 나이에 걸맞게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였고, 지역대학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성장해왔다.

이제 조선대학교의 설립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해방 직후 민족의 내일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인재를 만드는데 기꺼이 힘을 모았던 7만 2천여 호남 민중들의 뜻을 되새겨보고자 함이다.

2. 조선대학교의 설립 배경

민족의 내일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키우려는 움직임은 일제 식민지시기 때부터 있어 왔다. 1920년

대 초반부터 우리 민족은 대학을 설립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민족의 선각자들은 1923년 3월 29일 ‘조선민립대학설립기성회(회장 : 이상재)’ 발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학을 건립하려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려는 조선총독부의 방해와 1923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의 자연재해 때문에 그 활동이 지지부진해져 대학 설립에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우리 민족의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놀란 조선총독부는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의 전신)을 건립하였고, 반면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통제하였다. 일제의 방해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민립대학의 설립으로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으나 이후로도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각종 전문학교가 설립되어 1943년 현재 조선의 고등교육기관(사범학교 제외)은 경성제국대학과 관립 전문학교와 사립전문학교, 그 외 사립학교 등 총 28개교가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민족의 내일을 개척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꿈을 채우기에는 28개 고등교육기관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까닭에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날로부터 민립대학을 설립하려는 운동이 다시 일어났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 국내외에서 일제 식민지를 끝내려고 준비하던 세력들은 있었으나 끝내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으로 해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36년간의 가혹한 일제 식민 통치가 끝나는 것은 기쁜 일이었으나 동시에 새롭게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남겨졌다. 첫 번째 과제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주적인 민족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과제는 해방과 함께 시작된 민족분단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들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새로운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일제시기에 이루지 못했던 대학 설립이 시급한 일 중 하나였다.¹⁾

해방 직후 우리 민족은 일제시기에 이루지 못했던 ‘민립대학’ 건립의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경향 각지에서 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목적은 한 가지였다. 새로운 민족국가의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제시기에 이루지 못한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민립대학 건립운동은 아직 국가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다시는 식민지로 떨어지지 않는 부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민족적 포부가 담겨진 것이었다. 민족적 꿈과 이상을 현실로 만들려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넓은 대지를 사르는 들불처럼 전국 각지로 번져갔다. 다음의 <표 1>은 당시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결과 설립된 대학을 정리한 것이다.

1) 해방 직후 대학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였다. 나주와 영광 등지에서는 민립중학교가 설립되었고, 그 외 지역에서도 건학운동이 전개되었다.

〈표 1〉 민립대학 설립운동으로 설립된 대학

개교 당시의 교명	현재의 교명	개교 당시의 교명	현재의 교명
국민대학관	국민대학교	건국기술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	성균관대학교	감리신학교	감리신학대학
카톨릭대학	카톨릭대학교	수산대학	해양대학교
조선정치학관	건국대학교	대구대학+청구대학	영남대학교
국학대학(우석대 전신)	고려대학교와 합병	동아대학	동아대학교
조선신학교	한신대학교		

위의 표에서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대학들이 해방 직후 전개된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결과로 탄생하였다. 서울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주축이 된 국민대학관(국민대의 전신), 유림들의 주도로 설립된 성균관대학, 천주교단의 주도로 건립된 카톨릭대학, 조선 정치학관(건국대의 전신), 국학대학(우석대의 전신, 고려대와 합병), 건국기술학교(한양대의 전신), 감리교 주도의 감리신학교(감리신학대의 전신), 기독교단이 주도한 조선신학교(한신대의 전신), 한국대학관(서경대의 전신), 단국대학, 동양한의대학(경희대와 합병) 등이 설립되었다. 대구에서도 해방 직후부터 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어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이 설립되었고, 두 대학이 합쳐져 오늘날의 영남대학이 되었다. 부산에서는 동아대학과 수산대학(한국해양대학교의 전신)이 설립되었다. 이외에도 경향 각지의 수많은 대학들이 해방 직후 전개된 대학 설립운동의 흐름에서 건립되었다. 이렇듯 해방 직후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주요한 흐름 중의 하나였고, 이것은 우리 고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개되었고, 이것은 우리 대학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3.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결성

해방 직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대학 설립운동은 호남 지방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고장에서도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건국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한 갈래로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의의는 '조선대학설립동지회'의 회칙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조선대학설립동지회'는 "호남지방에 완전한 종합대학을 세워 호남의 수재와 조선 각지의 영재를 모아서 배양하자는 생각과 문화는 언제든지 영재가 창조발현하여 일반 국민은 그 문화를 향유하며 열락하는 것이 문화발전의 현상이고 보배 조선의 문화를 세계 수준에 급속히 따라 넘게 하는 때는 개성교육체계를 완립하며 ... 상기한 이상들을 구현할 수 있는 조선대

학을 설립하고자 구체적으로 조선대학 설립동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 조선대학 설립동지회는 이러한 각성과 결심에서 우선 조선대학원을 설립하여 주야로 조선의 준재를 교육 중에 현하 혼란과 궁핍한 처지에서 만남을 물리치고 장대한 포부와 견고한 신념을 가지고 탄생한 이 대학원이 세계열강의 어느 역사적 대학보다도 탁월한 교육기관이 되어서 ... 민족적 지도자들이 수천수만이 배양되도록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조선대학교의 설립과정은 앞서 언급한 경향 각지의 대학 설립운동과는 다른 특성이 있었다. 1945~1946년에 전국에서 진행된 대학 설립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미군정이 국가가 지원하며 통제하는 국립대학의 건립을 유도한 경우이다. 1946년 7월 13일 미군정 문교부는 ‘국립서울대학교 설치안(이른바 ‘국대안’)'을 공포하였다. 그 결과 경성제국대학과 관립전문학교가 통합되어 국립 서울대학교로 전환하였다. 지방에서도 비슷한 경로를 거치며 국립대학교가 세워졌다. 둘째, 일제시기 사립전문학교를 비롯한 고등교육기관들이 대학으로 전환한 것이다. 일제시기부터 존재하던 사립대학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 셋째, 해방 직후 대학 설립운동에 일부 뜻있는 인사들이 참여하여 개인 재산을 출연함으로써 대학으로 설립한 경우이다. 해방 직후 경향 각지에서 설립된 많은 사립대학들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조선대학교는 호남 지역민의 광범위한 호응과 자발적인 참여 속에 설립되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점은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역사와 우리 대학의 설립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즉 우리의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려는 우리 지역민의 힘과 지혜가 모아진 ‘민립(民立)대학’이며, 이것은 일제시기부터 존재했던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지향과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호남 지방의 대학 설립운동의 흐름은 1946년 4월 5일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창립준비위원회’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6월 29일 오후 광주 중앙국민학교(현 광주중앙초등학교)에서는 ‘조선대학 및 부속 중학 생산공장 설립동지회’ 회원 80여명이 모여 11명의 준비위원(한규중, 정홍석, 염세열, 최윤모, 박철웅, 백영흠, 문종구, 정현준, 최정기, 한상호, 조남제)을 선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회칙 초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 뒤 준비위원들에게 초안 작성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며 추후에 다시 동지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세 차례의 준비모임을 가진 뒤 1946년 8월 하순 광주서중학교(현 광주일고) 강당에서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집행위원들이 작성한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칙이 통과되고 임원진이 선출되었다. 회장에는 박철웅이 선출되었는데, 재정부장을 겸직하도

목 결정되었다. 그 외 부회장(2인), 각 부(총무부, 교육부, 기획부, 생산공장부, 재정부)의 부장(5인), 감사(2인), 이사진(28인)이 선출되었다.

‘조선대학 설립동지회’는 회칙에서 “조선대학 및 부속중학교, 부속생산공사를 설립하여 심오한 학리를 구명하매 조선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는 충의한 영재를 배육하여 조국건설의 초석이 되며 인류문화 선도자가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교육과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 회원의 자격을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본회의 이상을 달성키 위하여 성실히 진력코자하는 자로써 매년 100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되 특별공헌과 다액의 기부행위가 있는 자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회칙 제19조)”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자격은 이후 설립동지회 회원 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 영재의 초기 발견과 기 찬성이며 세계 문화수준에 급추월을 위하여 중소교육부터 개성교육체계의 실현을 기하여 본 대학은 부속중학을 설치함. 이, 발견 또는 창조된 학리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민족과 인류의 덕의향상과 부강을 위하여 본 대학은 부속생산 및 문화시설을 영위함. 삼, 빈곤으로 인한 영재의 낙오를 방지하며 학자의 유빈으로써 영재의 휘몰을 좌우치 않기 위하여 본 대학 및 부속중학에 입학한 빈곤한 자의 전 학비는 본회에서 담당(회칙 제3조)”하는 것을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원칙과 제도에 포함시켰다.

이렇듯 ‘조선대학 설립동지회’는 새로운 조국 건설과 인류사회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대학을 설립하며, 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였다. 아울러서 빈곤한 계층일지라도 교육 균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원칙과 이를 실현할 장학 제도를 회칙에 포함시켰다.

이후 ‘조선대학 설립동지회’는 호남 각지를 다니며 회원을 모집하고 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모집된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회원 중에는 비군정 문교부장(유억겸, 오천석), 사회 저명 인사(김성수-고려대 설립자, 김병로-초대 대법원장, 이승기-공학박사, 당시 서울공대 교수 등), 지역사회 관공리(판검사, 행정관료, 각급 학교장)에서부터 지역의 경제 단체 대표, 지역민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회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대학교는 그 출발에서부터 호남 지방 민중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만들어진 ‘민립대학’이었다.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칙에는 회장의 임무를 “본회를 대표하고 회부를 통리(회칙 제7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뒷날 창립 당시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박철웅은 조선대학의 학장으로 추대되며 학교 인가 설립 신청원에 조선대학의 설립자로 등재하였다. 그러나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창설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조선대학교는 어느 한 개인이 사유 재산을 출연함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회원으로 참여한 7만 2천여 호남 민중들의 염원과 희비가 모아져 오늘의 우리 대학이 설립되었다.

4. 조선대학교의 설립 과정

‘조선대학 설립동지회’는 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조선대학 설립동지회’는 전남도청에 조선대학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946년 9월 9일 당시 전라남도 최영옥 지사는 그 명칭을 광주야간대학원으로 변경해 설립을 인가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대학교는 1946년 9월 29일 광주야간대학원(4학부 12개 학과, 1,194명 정원)이라는 명칭으로 개교하였다. 개교 당시 광주야간대학원은 학교의 문을 열고 학생들을 받아들였으나 아직 교사가 없었으므로 광주상업전수학교, 서중학교, 서석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관음사 강당 등지를 빌려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수진들은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인사들이 무보수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들 중에는 양희경(경제사, 대법원 판사 역임), 김택주(경제학사, 조선대학교 이사장과 총장 역임), 양석표(변호사, 형사정책), 최윤모(민사소송법, 대법원 판사 역임), 한규중(정치학), 강표한(국어), 천경자(서양화), 최정기(전 총장, 화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광주야간대학원은 10월 20일자로 대학 명칭의 변경(광주야간대학원에서 조선대학원)과 학과 증설 및 정원 증원을 요청하는 허가 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고, 11월 23일 전라남도는 학교 명칭을 조선대학원으로 변경하며 학부·학과의 증설 및 증원을 허가하였다.²⁾ 이해 12월 1일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취지문이 발표되고 1947년 1월 11일에는 전라남도는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명의로 설립기금 및 기부금 모금을 허가하였다.

조선대학원이 출범하고 모금운동이 허가됨에 따라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당시 설립동지회 고문이던 서민호 전라남도 도지사와 이규정 광주지점 검사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광고문이 신문에 게재되고, 도지사 명의로 협조공문이 각 행정관서에 보내져 학교 설립운동에 힘을 보태었다.

2) 이보다 앞선 11월 13일 ‘조선대학설립동지회’ 고문이던 서민호 광주부윤(현 광주시장)이 전라남도 지사로 취임하였다.

당시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회원 모집에는 설립동지회원뿐만 아니라 조선대학원 학생들, 심지어 부속중학생들까지 열성적으로 나섰다. 학생들은 빌린 교사에서 공부하며 다른 한편으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회원 모집운동에 나섰다. 당시 재학생들은 전남도청에서 제공한 트럭을 타고 호남 각지를 순회하며 회원 모집운동을 벌였다. 또 새로 짓기 시작한 본관 건물에 필요한 벽돌을 만들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 오는 등 학업과 일을 병행하였다. 다음은 우리 대학 설립 시기에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증언이다.

“.....대학의 설립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입학 시에 내었던 회원 대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대금만 가지고서는 학교의 경상비에 불과하였으므로 학생들이 일선 시군면으로 직접 나가서 도민들을 상대로 위취지를 설명하고 동지회 회원권을 매당 100원씩 팔면서 모금 활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먼 처음 서범 케이스로 영암군을 택하여 약 50여명의 학생이 당시 전남도청 운수과의 트럭 두 대의 적재함에 분승을 하여서 출장을 하였는데, 의외로 모금 성과가 좋았다. 두 번째로는 구례군을 택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활동을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전라남도 일원을 차례로 순방활동을 하여서 그 회원에 참여한 수가 7만 2천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안다. (고병렬 증언, 정치과 1회 졸업생)”

학교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러 각지를 순회 방문했던 학생들은 ‘건설가’를 불렀다.(본문 24쪽 참조) 이 노래는 한규종 교수가 작사하고 단가 형식으로 불렀다고 알려졌다.

호남 민중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민립대학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회원 모집 및 모금에 호응하는 것으로 표출하였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호남 각지의 민중들은 새로 생기는 조선대학의 건립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다. 지역을 순회하던 학생들에게는 행정관서의 공무원들이나 이장 등이 앞장서서 편의를 제공하고 호남 각 지방의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원권을 사주며 새로 출발하는 우리 대학의 건립에 힘을 보태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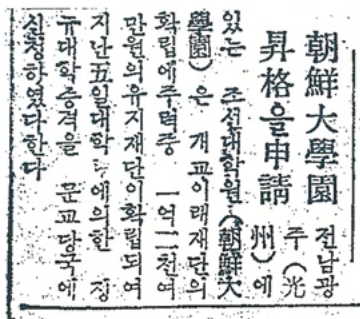
다음은 당시 우리 대학 설립에 관심을 갖고 보도했던 동광신문에 소개된 대학 설립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소개한 기사의 일부이다.

“영광군 영광면 도동리 曹喜範은 100만원을 기부하였고, 여수 호남 고무회사 사장 金永俊은 기금 100만원과 300만원의 건축자재를 기부하였다. 광주 대정동(현 대인동)의 金未禮는 임야 5정보를 회사하였고, 광주 금동의 崔學鳳(우리 대학 정치과 최성준 전 교수의 선친)은 논 4,600평(현 우리 대학 종합운동장 부근)을 기부하였다. 광주시 지산동 尹秉甲은 조대여중으로 통하는 길을 분할해 기부하였다. 보성의 李大淳은 10만원을 기부하였고, 영광의 鄭東潤은 6만원, 영광의 金鍾和는 5만원, 鄭太喜 5만원, 許承 5만원, 장성의 李起雨 10만원 등의 기부가 계속되었다.”

동광신문에 보도된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호남 지방의 민중들이 기꺼이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원으로 참여해 대학 설립에 큰 힘을 보탬으로써 우리 대학 설립의 초석을 닦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7만 2천여명의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들의 기부는 곧바로 우리 대학의 설립에 출발점이 되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1947년 6월 7일 조선대학교는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본관 건물의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이날을 기념하여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조선대학원 정초 기념 농악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이날 오전 11시에는 조선대학원 교사 건축 정초식을 거행하였다. 당시 조선대학원은 정경학부, 법학부, 공학부, 문예학부 등 4학부에 교수 60명이 재직하였고 학생 1,300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6월 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정초식은 수만 명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박철웅 학장의 경과보고와 서민호 전남도지사의 축사 그리고 전남여중 합창대의 합창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초기념농악대회가 개최되어 4시간 가량 진행된 뒤 오후 6시에 폐막하였다.



<사진 1> 조선일보 2면 1948. 1. 13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회원 모집과 모금운동이 이후로도 계속되어 총 1억 2천여 만 원을 보유한 재단이 설치되고 조선대학원에 1,8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게 되었다. ‘조선대학 설립동지회’는 1947년 12월 5일부로 문교부에 조선대학원을 정규대학으로 승격을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해 1월초에 재단법인 조선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원을 정식으로 접수(사진 1)하면서 ‘설립취지서’에서 “호남지방에 완전한 종합대학”을 세워 호남지방과 조선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식 인가가 난 이후로도 발전을 거듭한 조선대학교는 1949년 6월 12일 현재 건평 1800평 규모에

동지회의 회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었다.

화학 등의 과가 설치되었고, 교육과 생산을 연계시켰으며 부속중학을 설립한 상태였다. 이것은 설립

문교부로부터 정구 대학으로 인가될 당시 우리 대학에는 정치·경제·철학·문학·수학·물리·

으나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이 보도된 것은 처음 확인하였다.

7만 2천여 호남 민중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던 것이다. 그동안 이 같은 구술 증언은 있었

만하여 교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을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이다. 당시에도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에

최초의 언론 보도이다. 호남 민중들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학교 설립 자금이 마련되었고, 이것에 기

는 한 개인의 힘이 아니라 7만 2천여 호남 민중들의 호응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주는

특히, 이 기사는 조선대학교의 설립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준다. 조선대학교의 설립이 이

<사진 2> 조선일보 2면 1948.05.27



(사진 2). 바야흐로 '끓는 팍'이 일어난 다진 떡이 정구 대학으로 인가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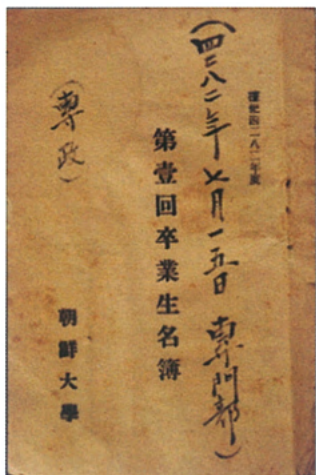
무등산 기슭에 위치한 10만평 가량의 터전에 문관 건물을 비롯한 교사를 건립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월 25일 현재 7만 2천여 명의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원들 모집하여 학교 운영의 재원을 마련하고

립자 박철웅으로 명기)을 정구 대학으로 승인하였다. 조선일보에는 '조선대학 설립동지회'가 1948년 5

1948년 5월 25일 미군정 문교부는 재단법인 조선대학의 설립을 인가하는 것과 동시에 조선대학(설

58개의 교실로 구성된 본관(공사비 9억원 계상, 완성시 연건평 6, 200평,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건물을 짓고 있었으며, 3만 5,000평의 운동장과 2,000m 면적의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또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당시 극빈곤층 학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여 중등학생 200명과 대학생 100명을 합쳐 총 300명의 학생들과 애국지사의 자식들을 교육 시킬 방침을 계획하였다³⁾.



당시 우리 대학에는 106명의 교수진과 강사가 재직하였으며, 2,500명(대학 1천명, 부속중학 1,5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49년 6월 25일 제1회 전문부 졸업식을 거행하여 총 37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사진 3).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학교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였다. 우선, 대학 설립과 발전을 주도했던 ‘조선대학 설립동지회’가 사라져버렸다. ‘조선대학 설립동지회’의 많은 회원들이 전쟁의 참화를 피해 광주를 떠난 상황에서 10만 여 명에 달하던 ‘조선대학 설립동지회’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전에 쌓였던 성과와 예산은 전쟁

<사진 3> 제1회 졸업생명부 (1949년) 의 소용돌이에 묻혀 버렸다. ‘조선대학 설립동지회’가 그 존재조차 없어

진 반면 회장이자 당시 학장이던 박철웅은 자유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며 조선대학교는 점차 사유화된 대학으로 전락하였다. 그리하여 대학 설립 당시 7만 2천여 호남 지역민들이 세운 ‘민립대학’의 의미는 퇴색한 채 한 사람의 설립자가 학교를 건립한 것으로 설립의 역사가 왜곡되었다. 이후로 대학 설립과 운영에 대해 몇 차례의 문제 제기는 있었으나 1988년 박철웅 총장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우리 대학 설립 당시의 숭고한 건학이념과 역사 그리고 ‘민립대학’의 의의를 복원할 수 없었다.

반면 한국전쟁은 우리 대학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전쟁의 참화를 피해 서울 지역의 대학 교원들이 피난 오면서 우리 대학에 ‘전시연합대학’이 개설되었다. 이런 가운데 1953년 3월 10일 조선대학이 종합대학교인 조선대학교로 승격됨과 동시에 대학원도 설치되어 석사학위 과정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3) 연합뉴스문 1949년 6월 12일(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대학교의 설립은 매우 의미가 있는 역사를 가졌다. 이 독특하고 특별한 설립의 역사가 오늘의 조선대학교를 빛나게 하는 이유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숭고한 설립정신이 조선대학교와 나아가 호남의 인재 양성이라는 현재적 가치를 덧입게 된다면 앞으로 조선대학교와 지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으리라 생각된다.

조선대학교 65년—그 변화와 발전

박진철(조선대학교 사학과 조빙객원교수)

차례

1. 머리말
2. 기구
 - 1) 대학 기구의 변천
 - 2) 시기별 교수·학생·직원의 변화
3. 교육과 연구
 - 1) 교육
 - 2) 연구
4. 시설과 환경
5. 맺음글

1. 머리말

1946년 정부 수립 이전에 이미 출범한 조선대학은 이제 대한민국과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다. 여기서 지난 65년을 돌아보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본고는 조선대학교 65년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가 기구의 변화이다. 조선대학교의 시스템, 즉 조직과 기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조선대학교는 65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다른 어떤 대학과 비교해도 그 규모면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를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둘째는 교육과 연구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이다. 교육은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이끌고 갈 인재를 길러내는 것인데, 조선대학교는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왔고 또 양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단지 조선대학교의 발전뿐 만 아니라 국가 발전 더 나아가 세계 인류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여기서는 양적인 발전에 걸맞은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는가 하는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民族的指導者들이 數千數萬이 培育되옵도록 祝

셋째는 시설과 환경이다. 조선대학교는 전국적으로 상위에 드는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조선대학교의 역사는 이러한 넓은 캠퍼스 위에 새로운 시설을 세우고, 아름다운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여 온 역사이기도 하다. 조선대학교의 각종 시설들이 언제 어떻게 세워지고 캠퍼스 환경이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2. 기구

(1) 대학 기구의 변천

조선대학교는 1946년 9월 29일 광주야간대학원으로 개교 후, 만 6년 5개월여 만인 1953년 3월 10일에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다. 이때 문리과대학·법정대학·공과대학의 3개 대학이 설치되었다.

문리과대학은 처음에는 문학, 수물학, 화학, 체육, 예술학과 등 5개 학과였다. 이후 1954년에 사학과와 약학과가 신설되어 7개 학과가 되었다. 특히 약학과가 신입생을 모집할 때 경쟁률은 8대 1에 육박했다고 하며 58년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었을 때는 졸업생 26명 전원이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당시 전국 약학과 졸업생을 배출한 대학 중 전원 합격한 대학은 조선대학교와 성여대뿐이었다. 신설된 사학과 역시 경쟁률이 15대 1에 달할 만큼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1955년에는 생물학과가 신설되고 1958년에는 예술학과가 미술학과와 음악학과로 분리 신설되기도 하였다. 법정대학은 처음에는 법학, 정치학, 경제학과 등 3개 학과였으나 1955년에 상학과가 신설되어 4개 학과가 되었다. 공과대학은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으로 구성되어 출발하였다. 이때부터 조선대학교는 종합대학으로 본격적인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1954년 10월 30일에는 조선대학교 이부대학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광주 상무대 안에 있던 육군 교육총본부에 소속된 장교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1955년에는 조선대학교 초급대학을 조선대학교 여자초급대학으로 교명 변경을 인가받아 호남 유일의 여자대학이 탄생하였다. 이후 여자대학은 가정학과를 중심으로 영문, 국문, 음악교육 등 여러 학과가 차례로 증설되었다.

1957년 5월 31일에는 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은 12개 종합대학에 불과하였는데 조선대학교가 여기에

포함되었던 것이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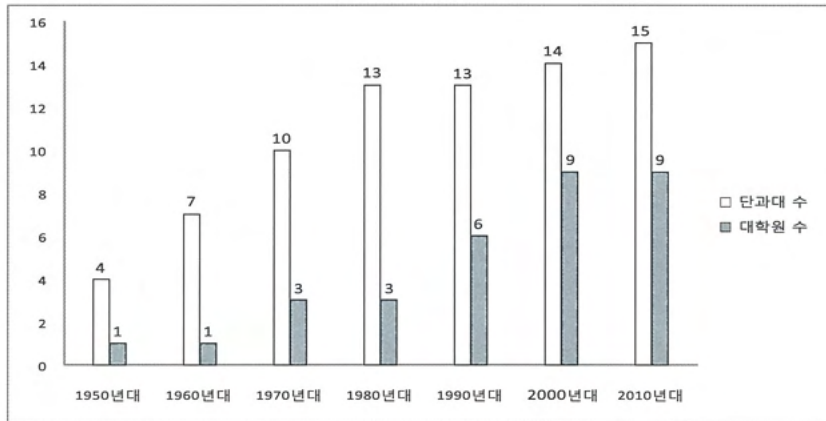
조선대학교의 주요 기구 변화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대학교 주요 기구 변화

1946	9월 광주야간대학원으로 개교	11월 조선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1948	5월 정규대학 조선대학으로 개편	
1953	3월 조선대학교 종합대학교로 승격	3월 대학원 설립
1954	10월 이부대학 설립	
1955	1월 여자대학 설립	
1959	2월 약학대학 설립	
1965	1월 사범대학 설립	
1966	12월 의과대학 설립	
1971	4월 부속병원 개원	12월 체육대학 설립
1973	12월 치과대학 설립	
1978	10월 경상대학 설립	10월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개원
1979	9월 외국어대학 설립	12월 산업대학원 설립
1980	10월 미술대학 설립	
1986	11월 문리과학을 인문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 개편	
1989	3월 법정대학을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 개편	
1993	9월 환경보건대학원 설립	
1994	10월 중소기업대학원 설립	
1995	5월 사회교육원 설치	6월 중등교원연수원 설치
1996	3월 어학교육원 설치	10월 지방정책대학원 설립
1997	2월 산학협력원, 사회봉사단 설치	
2000	7월 고전연구원 설치	8월 전자정보공과대학 설립
2001	7월 디자인대학원 설립	
2005	3월 군사학부 신설	11월 민주화운동연구원 설치
2007	3월 상담심리학부, 언어치료학부 신설	
2008	3월 기존 30여 개 연구소를 인문학연구원 등 8개 연구원으로 개편	
2009	3월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설립	
2011	1월 기초교육대학 설립	

1) 당시 박사학위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은 조선대 외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성균관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 등 모두 12개 대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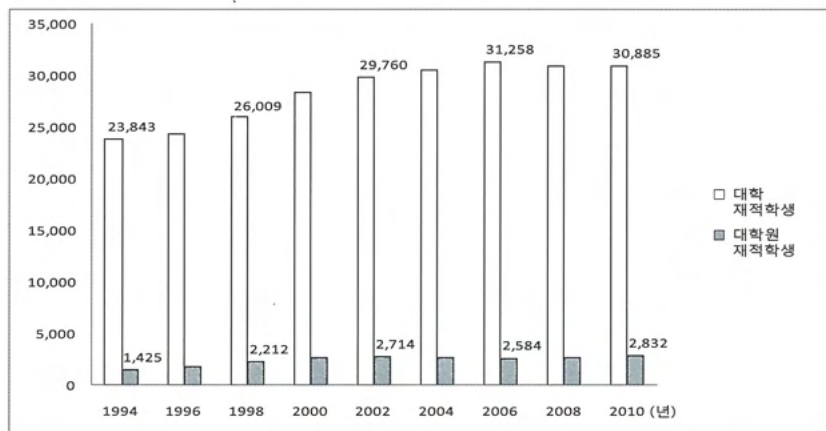
현재 단과대학은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공과대학, 사범대학, 외국어대학, 체육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미술대학, 기초교육대학 등 15개 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보건대학원, 경영대학원, 정책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9개 대학원이 있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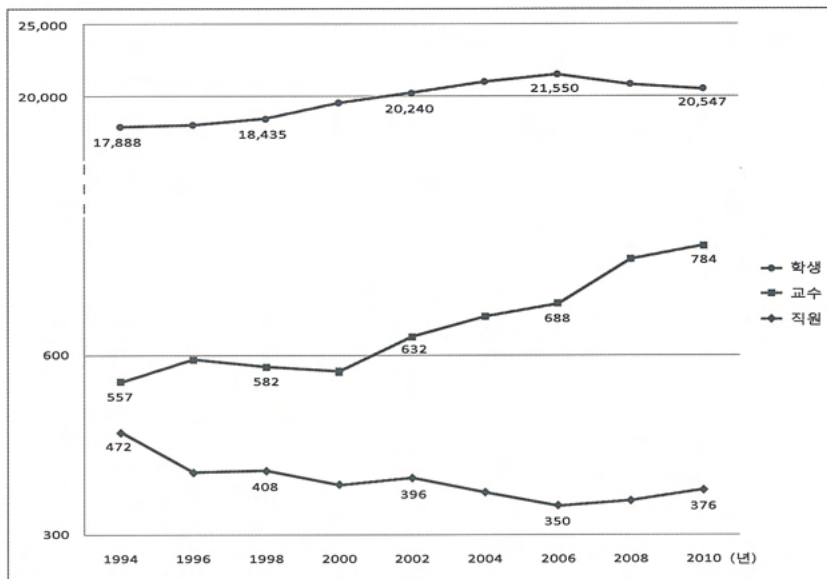
〈그림 1〉 시기별 단과대학과 대학원 수

(2) 시기별 교수·학생·직원 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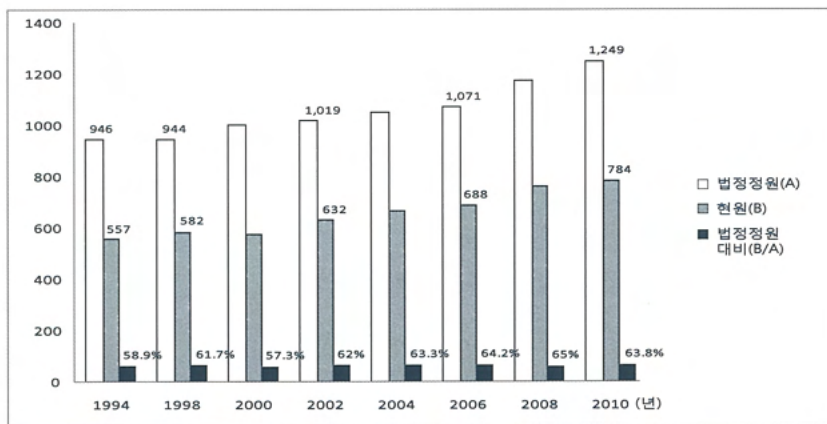
시기별 대학·대학원의 재적학생과 재학생·교수·직원의 인원 변화는 <그림 2, 3>과 같으며 법정 정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2〉 시기별 대학과 대학원 재적학생의 수



〈그림 3〉 시기별 재학생·교수·직원의 수



〈그림 4〉 시기별 법정정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전임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양질의 대학 교육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대학교는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10여 년 전에 비하여 거의 10% 이상의 전임교원이 증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정정원 대비 약 64%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전체 강의의 40% 가량은 비정규교수들이 맡고 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도 많은 개선이 있어 왔으나 선진 대학들에 견주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영국은 1.6명, 일본의 동경대학은 7.9명, 미국의 경우 주립대학은 대체로 16~20명, 사립 대학은 12~13명이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19.2명 정도이다. 이 자료에서 조선대학교가 교육과 연구의 진적 발전을 꾀하고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선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양질의 전임교원을 확대 충원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교육과 연구

대학은 교육으로 국가와 인류 공영을 위하여 이바지할 다양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여 지역 사회와 국가에 기여한다. 이렇듯 대학 본연의 기능이 학문 연구와 교육에 있다는 것은 새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에 대학의 가치는 그곳에서 행해지는 교육 그리고 연구의 내용과 성과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1) 교육

대학 교육은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여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대학의 기본적인 역할은 바람직한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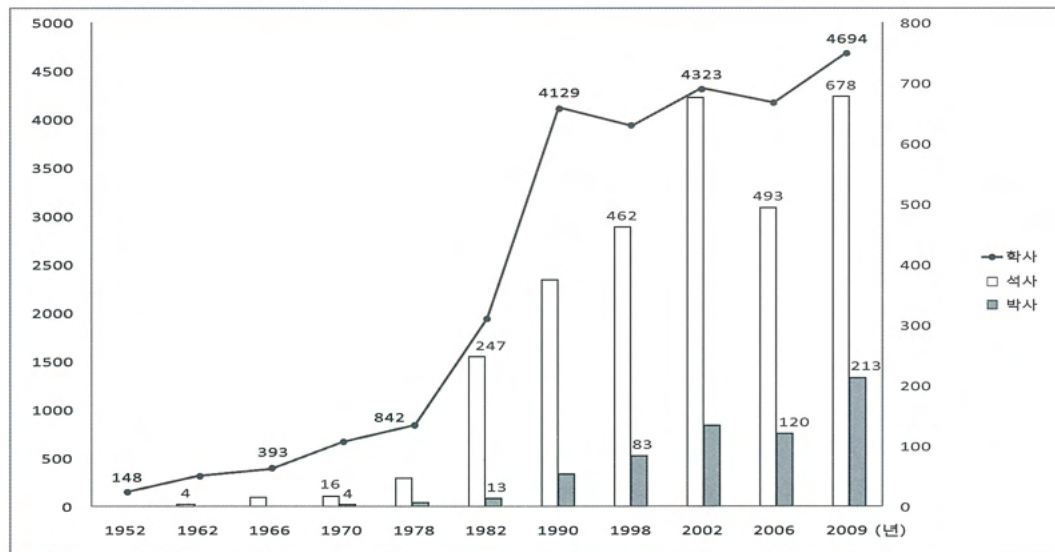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설립동지회 회칙’을 보면, 조선대학교를 설립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국과 인류를 위해 이바지할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 당시부터英才를 조기 발견하고 길러내며 각 개인의 독특한 소질과 창조적 정신을 개발하는 개성교육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또 실천 지향적이며 인류의 향상과 부강을 위한 생산교육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뛰어난 인재가 경제적 여건에 의해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것이 조선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영재교육, 개성교육, 생산교육인 것이다.

조선대학교는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목을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을 수준 높은 교양 교육의 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 교육의 장으로 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대학을 전문 교육의 장으로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교양있는 전문인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교양 과정은 개별 교육 단위를 넘어 전 대학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교양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에는 기초교육원을 설립하였다. 기초교육원은 인성·교양·문화적 소양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학생들에게 도덕적 소양과 인성,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1년에는 기초교육원이 기초교육대학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보다 획기적인 기초교양교육 기반 구축이 기대된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결국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교수의 질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에 따라 내용과 수준의 차이가 크다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교양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고른 수준의 교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표준적인 강의안이나 교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끝으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학사, 석사, 박사학위자는 <그림 5>에서 보듯이 학사는 1952년에 148명 배출에서 2009년에는 4,694명, 석사는 1955년 2명에서 2009년에 678명, 그리고 박사는 1964년에 1명에서 2009년에 213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5> 시기별 학사·석사·박사 배출 현황

(2) 연구

교육이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연구는 창조적 지식을 생산하여 사회가 요구하

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는 대학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교수는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 결과를 공개 발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대학은 재정·행정적으로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연구를 담당할 핵심 기구가 연구소이다. 연구소는 학과(부)나 대학원에서 하기 어려운 학제간 연구 등을 수행한다. 또한 학과(부)나 대학원보다 설립과 운영이 자유롭기 때문에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소는 연구 역량의 증대와 다양한 학문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대학에서 연구를 활성화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전략적 운용과 활용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연구 기구

연구자의 창의적 개인연구와 공동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조선대학교는 이러한 연구자의 연구를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다. 2008년에 이르러 조선대학교에서는 20여 개에 이르던 기존 연구소를 학문분야별 8개의 연구원, 즉 인문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법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지식경영연구원, 공학기술연구원, 국제문화연구원, 의학연구원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연구소를 통폐합하여 적절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수준의 학술지를 발간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그런데 학문의 전문화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러한 연구소의 통합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다행히 2009년도에 법학연구원의 『법학논총』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인문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인문학연구』, 사회과학연구원의 『동북아연구』, 기초과학연구원의 『조선자연과학논집』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결과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연구 기구와 함께 연구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조선대학교 도서관은 1950년 6월 10일 본관 중앙 2층에 서고 80평, 열람실은 100평 규모에 150석, 장서는 20,000권을 소장하고 개관하였다. 1966년 6월에는 본관 서북방에 있는 여자초급대학 건물로 이관하였다. 이때 도서관은 전평 1,416평, 열람석은 400석, 장서는 50,000권 규모였다. 1969년 2월에는 약대 분

관, 1970년 3월에 의·치대 분관, 1972년 2월에 공대분관, 1988년 4월에 자연대 분관을 설치하였다. 1994년 11월 5일에는 약대분관이 의·치대 분관에 흡수되어 의·치·약대 분관으로 개칭되었다.

2000년 9월 28일에 신축도서관 기공식(지상 7층, 연건평 5,170평)을 가졌고, 2002년 11월 8일 신축도서관이 준공되었다. 이어 2003년 2월 10일 좌석수가 5,866석에 이르는 신축도서관을 개관하고, 공대분관·자연대분관·의대분관을 중앙도서관에 통합하였다. 2007년 12월 13일에 중앙도서관의 분관인 법학전문도서관이 개관되었다.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10년 2월 29일 현재 국내서적 354,818종, 730,537권, 동양서적 41,544종 87,845권, 서양서적 99,136종, 246,856권, 총 495,498종 1,065,238권을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서관은 정보를 찾는 사람과 정보를 가진 연구자와 문헌을 연결시켜 주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편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도서관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문제와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제한하는 문제를 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 연구 성과

현재 조선대학교는 교수들의 연구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수업적 평가제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학술논문발표와 저서 발간은 업적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조선대학교 교수들의 논문발표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1994년 전임교원의 국내 학술논문 1인당 발표실적은 1994년에 0.31편이었던 것이 2003년 이후 2008년까지는 평균 1.18편이 된다. 이는 거의 4배에 가까운 논문발표 실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계열의 경우도 1994년에는 0.32편이었던 것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평균 1.41편으로 나타난다. 이는 거의 4.5배에 가까운 실적 증가이다. 이에 비해 전임교원의 1인당 국제 학술논문 발표실적은 자연계열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평균 0.11편에서 2003년에서 2008년까지 평균 0.65편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거의 6배에 가까운 실적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문사회계열의 국제 학술논문 발표실적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연구 성과는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계와 공학계의 연구 성과를 논문 출판수, 특히 국제 학술지 발표 논문의 수로 정량화하여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

를 원들에게 전어용라 한을 한층 쌓아올리며 세워진 것이다.

조선대학교 건물의 신중축를 중심으로 한 대학의 건설 부문은 1954년까지를 기본적인 시점이 완료된 시기로 볼 수 있다. 1949년 3월 20일 856평에 달하는 첫 교사(敎舍, 현 대학원)가 낙성되었다. 이후 계속적인 건설로 1955년 현재까지 준공된 산하 주요 건물 및 시설은 대략 다음과 같다. 문관 7층 3,200평, 부중 제1교사 단층 856평, 부중 제2교사 단층 848평, 부고 제1교사 2층 560평, 이부대학 교사 2층 560평, 여자대학 교사 3층 780평, 도서인서관 4층 650평, 부속제재공사 단층 120평, 부속연외공사 단층 580평, 실습공사 단층 280평, 종합운동장 25,000평, 전유비행장 활주로 15,000평 등이다.

관리되어야 한다.

교육·연구·사회봉사라는 대학의 기능을 원형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본 시설, 교육 지원 시설, 실험 설비 확보, 후생 복지 시설 등 시설편비가 적절하게 갖추어지고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4. 시정과의 화해

진포를 필요로 있다.

또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연구비이다. 충분한 연구비의 지원 없이 뛰어난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볼 때 대체로 연구비 수혜액이 증가할수록 교수 연구 업적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학제인 만큼 고려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 다. 하지만 최소한 양적인 측면에서 연구비의 증액은 연구 성과와 비례 관계에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연구 지원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최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 이의 해결법 학문 특성용 무시함으로써 자용성용 침해한 무리가 크다. 인문학파 같은 경우 학문 분야에의 연구 성과를 단순히 계량화하고 시가 경제의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도리어 학문의 발전을

본관 공사는 자급자족의 태세를 갖추고 진행한 점이 주된 특징이었다. 즉 건축을 위해 제재소(製材所)와 벽돌생산공장 등 부속기관을 운영하여 자립 공사를 통해 공사의 신속성과 안전을 기하였다. 특히 이 건물은 당시 박철웅(朴哲雄) 총장이 직접 벽돌을 진 채 앞장서고 그 뒤를 모든 구성원이 뒤따르는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²⁾ 이렇듯 본관 건물은 당시 학교에 몸담았던 모든 구성원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건물이다.

1947년 4월 무등산 기슭에 건설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본관 7층 건물과 부속고등학교 및 활주로, 종합운동장 등 대공사를 완성시키게 되었다. 이 중에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1955년 6월 18일 대학 캠퍼스 중앙에 자리 잡아 완공된 활주로는 매우 특이한 것이었다. 당시 국내외 저명 교수와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송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니 그 현실성은 차치하고 그 이상만은 야심찬 것이었다고 하겠다. 1958년에 들어서면 학내 연구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제반 시설을 완비하는 가운데 중앙도서관의 시설이 확장·강화되었다.

조선대학교는 산기슭에 하얀 뽕죽 건물들이 광주의 중심을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다. 그 길이에서부터 풍기는 웅장함은 광주 시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면서도 결코 배경이 되는 산(山)을 넘어서서 거스르지 않는 겸손함도 가지고 있다. 조선대학교의 뒷산은 학이 날아와 깃들던 곳으로 학산(鶴山)이라 불려왔다고 한다. 조선대학교의 상징으로 백학(白鶴)이 선정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대학교와 산하 학교군을 거느린 방대한 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짓는 일이었다. 하지만 ‘조선대학교 교육지구(教育地區)’가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캠퍼스 조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한편 재단 측에서는 무리하게 학교 부지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이어졌다. 1960년대는 조선대학교의 외형적인 확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학교 경영을 둘러싼 법인의 독주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새로운 불씨로 대두된 시기였다. 캠퍼스 계획안의 실행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원활한 토지수용 문제였다. 무리한 토지수용방식은 많은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샀고, 이로 인한 대학 이미지의 실추는 뜻있는 이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그렇지만 전남과 중앙의 토지수용위원회를 이용한 수용 작업은 계속되어 갔다.

1963년 12월 8일 조선대학교 교육지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 부지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되었다. 그리하여 본대학교 일대 132만 평을 교육지구로 확정 받음으로써 8개 단과대학과 실업초급대학, 여자초급대학, 공업전문대학, 부중, 부고, 여중, 가정여고 등의 방대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호

2) 『조선대학교 50년사』, 조선대학교, 1997, 104~105쪽.

남 교육의 본산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조선대학교 캠퍼스는 전국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그 규모면에서 결코 뒤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를 캠퍼스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는 조선대학교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부채로서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대학교는 설립 이래 최근까지 각종 건물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축 또는 신축하며 변화, 발전하여 왔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의 자세한 내용은 <표 2>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2> 1960년대 후반 이후 신축 건물의 연혁

1967년	종합병원
1978년	치과병원
1992년	교수연구동, 자연과학동, 약학대학 실습동
1996년	선박해양공학관, 의과대학 제2교사
1997년	공과대학 3호관
1998년	산학협력연구동 FMS공장, 제2복지관
1999년	학생복지관
2000년	약학대학, 의과대학 임상교수동, 치과병원, 창업보육센터
2001년	치과대학교사, 학군단
2002년	기숙사, 중앙도서관
2004년	법과대학, 경상대학 교사, 의과대학 강의동, ERC
2005년	전자정보공과대학 교사, 청단산학캠퍼스, 고시원 황금추원
2007년	해양생물연구센터(전남 완도)
2008년	창업보육센터, 치과대학 제2교사

캠퍼스 공간은 구성원 모두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곳이다. 교수와 학습, 대학행정과 각종 행사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캠퍼스 공간이다. 이러한 캠퍼스 공간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고 주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억은 공간과 맞닿아 있다. 공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됨으로써 다른 각 부문들의 활동들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학 설립 이래 계속하여 확장되어온 캠퍼스는 현재 전국 어느 대학과 비교하여도 그 규모면에서는 손색이 없는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³⁾.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교내 순환버스를 이용해야 할 만큼 조선대학교의 캠퍼스는 그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단순히 그 규모의 크기 못지않게 아름다운 환경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장미공원'의 조성을 들 수 있다.

3) 교지 면적은 1,122,394㎡

사람은 누구나 공간과 함께 추억한다. 미술대학 옆 후문 쪽 잔디밭은 예전에는 언덕이었다. 이 언덕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잔디밭을 만든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이 잔디밭을 ‘알코올 랜드’라고 부른다고 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에는 이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 술자리를 갖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마 조선대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기억에는 이곳이 추억의 장소로 남을 것이다.

현재 공과대학 제1공학관은 원래는 공대 2호관이었다. 그 앞에 지금은 주차장이 되어버린 자리에 공대 1호관이 있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철거한 것이겠지만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공간이 사라진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이렇듯 사라진 공간이 있는가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많은 공간들이 캠퍼스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고 있다.

조선대학교 캠퍼스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린(green) 캠퍼스’, ‘캠퍼스 파크(park)’ 등을 지향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캠퍼스가 그저 아름다운 교정만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지역공동체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날 조선대학교의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던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지역민의 자랑이 되고 사랑받는 캠퍼스가 될 때 조선대학교의 새로운 미래는 열릴 것이다.

5. 맺음말

조선대학교의 그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여러 여건상 그 어떤 질적인 평가나 가치적 판단은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다만 대학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실현할 수 있는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대학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부금 및 국고 보조금의 확대, 재단의 정상화와 사업 수입의 확충 등이 절실해 보인다.

조선대학교의 역사는 보다 장기간의 계획과 많은 연구자의 참여로 치밀하게 쓰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사편찬을 담당하는 상설기구가 설치되어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기록들을 충실하게 모아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기별로 교사(校史)를 발간하는 체제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일수록 수십 권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교사를 가지고 있음을 귀

民族의指導者를
數千數萬이
培育되
음도
祝

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글이지만 앞으로 쓰이게 될 보다 본격적인 조선대학교 역사 서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조선대학교 50년사』, 조선대학교, 1997.
- 『조선대학교 사료집』1, 2, 3 권, 조선대학교, 1995.
- 『조선대학교 통계연보』제2호(1995), 제4호(1997), 제7호(2000), 제8호(2001), 9호(2002), 13호(2006), 14호(2007), 15호(2008), 16호(2009).
- 『조선대학교 연례보고서』, 2000,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학년도.
- 『조선대학교 본관-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7.
- 『조선대학교 박물관 10년사 1992~2002』, 조선대학교 박물관, 2002.
- 『사진으로 보는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60년사 1949~2009』, 조선대학교총동창회, 2009.
- 『조선대학교 일람』, 재단법인 조선대학교 발행, 단기4294년 4월 1일.
- 『99교육개혁 추진 실적 및 계획서』, 조선대학교, 1999. 4.12.
- 『조선대학교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조선대학교 자체평가 연구위원회, 제출일 1998년 9월 17일.
- 『조대신문 50년사 1954~2004』, 조선대학교 조대신문사, 2006.



th

특별전 조선대학교 65년

민족 지도자들이 수천 수만이

배육되옵도록



조선대학교 박물관
CHOSUN UNIVERSITY MUSEUM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062)230-6333
<http://museum.chosun.ac.kr>
ISBN 978-89-966521-0-6 <비매품>



특별전 _조선대학교 65년

민족 지도자들이 수천 수만이 배움됨도록



조선대학교 박물관
CHOSUN UNIVERSITY MUSEUM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062)230-6333
<http://museum.chosun.ac.kr>
ISBN 978-89-966521-0-6